

LOCAL
×
WORK
×
STAY

청정지역프로젝트

서울청년, 지역으로가다

LOCAL
×
WORK
×
STAY

청정지역프로젝트

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

청정지역프로젝트는 (202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별칭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73명 서울청년들은 강원, 경북/대구, 충청/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99개 지역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했고, 68개지역 공헌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에서 8개월. 청년이 머문 그곳에서 낮설고, 설레고, 힘들지만 새로운 경험을 얻었을, 지역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

to GO 

서울에서

지역으로



CONTENTS

06 Local Work Stay 서울청년, 지역을 만나다

- 08 강원 / 제주
도시 숲을 벗어나 바다를 만났습니다
- 09 충청 / 전라
천천히 걸다 보면, 이 길이 나에게 말해주겠죠
- 10 경북 / 대구
가끔씩 그리울 겁니다, 내가 머물렀던 그 곳
- 11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 12 서울 청년, 지역기업에서 일하다
나는 []에서 []로 살아봤다
- 16 청년과 사람, 멘토링으로 연결됐다
- 20 서울 청년, 지역사회와 같이 걸었다
- 22 History
청정지역프로젝트 1년의 기록

24 Letter from Local 지역에서 온 편지

- 26 Special Letters
- 30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자 만족도 결과

38 Dear My Friend 우리는 지역생활 [짝꿍]입니다

- 40 짝꿍 인터뷰 01
지역생활 에세이 『서울아가씨 화이팅』 저자 노니&키티
우리에게지역은 가능성이죠. 생각하는 만큼 길을
열어줘요
- 44 짝꿍 인터뷰 02
조상화 님과 '춤추는 발레' 팀
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 46 짝꿍 인터뷰 03
조희준 님과 양반문구점
우리 동네 문방구 캠페인,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 48 짝꿍 인터뷰 04
김예빈 · 도형 남매의 솔기로운 지역생활
어린시절 짝꿍이 지역생활 어른이 됐습니다
- 50 짝꿍 인터뷰 05
전혜인 · 정세현 매니저와 최하은 청년
지역에서 유쾌한 짝꿍이 되는 법
- 52 짝꿍 인터뷰 06
안소영 님과 주상권 대표
지역에서 시작한 청춘의 날들

54 Local Keyword 내게 지역은 []이다

- 56 참여청년 인터뷰 01
내게 지역은 [영양제] 다
- 58 참여청년 인터뷰 02
내게 지역은 [U턴]이다
- 60 참여청년 인터뷰 03
내게 프로젝트는 [아침형 인간] 이다
- 62 참여청년 인터뷰 04
내게 청정지역은 [고민 해결사] 다
- 64 참여기업 인터뷰 01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지속가능성] 이다
- 66 참여기업 인터뷰 02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다
- 38 참여기업 인터뷰 03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Drink Fresh] 이다
- 70 참여기업 인터뷰 04
지금 지역에는 [함께 일할 청년] 이 절실하다
- 72 지역공헌기관 인터뷰 01
아이들에게 청정쌈은 [따뜻한 위로] 다
- 74 지역공헌기관 인터뷰 02
지역에서 청정쌈은 [대화를 나눌 친구] 다

76 Local Light 로컬라이트 X 지역기업 기획전

- 78 로컬라이트 대상
주인공(酒人空)
지역의 문제를 수제맥주에 담다
- 78 로컬라이트 최우수상
오늘, 어떤 기분하신가요?
동네 서점을 열다
- 열두 달 살고 싶은 도시, 울산
울산의 명소 12경을 다시 담다
- 85 로컬라이트 우수상
메리&안동
지역의 로컬라이트를 인터뷰하다
- 청정 투익스_부산
'착한기업' 알리기 프로젝트
- 로컬맥주 살롱 B.B.B
청춘과 지역이 취하다
- 84 인기상 (SNS상) 10팀
- 86 청정지역프로젝트 X 현대백화점그룹 후원
청정지역프로젝트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 90 Ending Letter

Local
Work
Stay

서울 청년, 지역을 만나다

강원/제주 | 도시 숲을
벗어나

바다를
만났습니다



충청/전라 | 천천히 걷다 보면,
이 길이 나에게
말해주겠죠

경북/대구 | 가끔씩 그리울 겁니다,
내가 머물렀던
그곳



부산/울산/경남 | 지역에서
다양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서울 청년, 지역기업에서 일하다

나는 []에서 []로 살아봤다



나는
[문경]에서 [브루어]로
살아봤다

김진형님은 경북 문경의 로컬맥주회사 가나다리브루어리에서 로컬맥주, 애플사이다 양조를 담당했다.



나는
[산양]에서 [바리스타]로
살아봤다

조하은님은 경북 문경 산양면의 산양정행소, 화수현 등에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 카페 공간 운영에 참여했다.



나는
[안동]에서 [공간 기획자]로
살아봤다

조하준님은 경북 안동의 고타야 게스트하우스에서 빈 공간을 재구성하고, 동네 문방구를 되살리는 작업을 했다.



나는
[부산]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살아봤다

이세리님은 부산 이바구길의 민박촌 이바구캠핑에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재했다.



나는
[속초]에서 [영상편집자]로
살아봤다

안소영 님은 속초 일대의 로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영상 프로덕션 빛나는 날들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나는
[영월]에서 [발레 선생님]으로
살아봤다



조상화 님은 강원 영월의 영월군스포츠클럽에서 지역의 어린이와 성인 대상 발레 클래스를 진행했다.

나는
[홍성]에서 [농촌 기획자]로
살아봤다



이지희 님은 충남 홍성의 유기농업을 이끌어가는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나는
[익산]에서 [동물 관리사]로
살아봤다



정지은 님은 전북 익산의 동물 체험농장 액션하우스에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청년과 사람, _____ 멘토링으로 연결됐다



멘토링은 청정지역프로젝트의 차별화된 참여자 성장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은 청년과 사회인 멘토, 지역 전문가가 만나 1:1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살롱 드 청정(권역별 멘토링)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지역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인 멘토를 만나 지역생활 노하우와 진로 고민,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멘토링을 경험한 청년의 70% 이상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사람과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살롱 드 청정 in 안동

청춘잡담 : 공간에 문화를 입히다



지난 10월, 경북 안동의 고즈넉한 한옥 '가일서가'에서 "청춘잡담: 공간에 문화를 입히다" 편이 진행되었다. 코로나 지속으로 오프라인에는 최소 인원, 다른 청년들은 비대면 멘토링으로 참여했다. 단계적 귀촌 선배이자 '가일서가' 운영자인 김현정, 이가람 멘토, 도서출판 성심의 대표이자 '피터팬 콤플렉스'의 전 멤버였던 김민근 멘토, 안동 카페 '396 coffee' 대표이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인 서대환 멘토들이 디자인과 콘텐츠, 공간 기획 등 지역재생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에서 씨를 뿌렸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How to do'가 아닌 'what to do'였어요.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 때 '어디 목 좋은 데를 잡아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문화 기획 연구원이던 아내와 함께 3년 전에 이 마을에 내려와 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당위성을 찾았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갖고 작은 씨앗을 심을 때, 꽃은 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가람 멘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서울에서 살면 팍팍하니 지역에 내려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는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스스로 고민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이를 응원하고 투자해줄 사람들은 주위에 분명 있습니다. (서대환 멘토)

진정성에 대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본질에 집중하기, 조급하지 않기 등 삶에서 중요한 답을 들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지역에 내려오던 처음을 잊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제가 할 일을 묵묵히 하려고 합니다. (김연희 님)





살롱드 청정 in 부산

우리가 만드는 마을의 어제, 오늘, 내일

지난 8월의 여름날, 부산 영초산방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만드는 세 명의 멘토가 모였다. 영도의 옛 조선소 부지를 재생하는 알티비퍼얼라이언스의 김철우 멘토,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스트하우스 이바구 캠프의 박미진 멘토, 로컬 콘텐츠와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 멘토. 청년들은 지역 선배이자 멘토를 만나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묻고 답했다.

진심은 통합니다

낯선 지역에서 처음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이바구 캠프는 마을 주민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마을 분들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고, 꾸준히 진심을 전했죠. 지역과 함께 할 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박미진 멘토)*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김철우 멘토께서 "도시재생은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내가 해결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 부산과 더 넓은 세상 곳곳을 둘러보고 여행하면서, 제가 해결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민해 보려 합니다. *(문혜영 님)*



살롱드 청정 IN 춘천 & 서울

지난 10월 춘천 세종힐링의원 커뮤니티 공간 소라재에서 진행된 살롱드 청정 멘토링 주제는 "강원도에 나를 심다"였다. 강원 지역에서 일과 삶을 일구고 있는 2030 지역 청년 창업가와 만남을 통해 지역에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엿보고, 지역살이의 의미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11월 열린 살롱드 청정 IN 서울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청년과 지역이 만났다.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으로 '여행' 온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나'라는 목적지를 향해 여행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anz이를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지역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소그룹 멘토링은 직무 및 직업과 관련된 주제로 지역의 사회인 멘토와 1~9명의 청년 그룹이 만나 소통하고 관심사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은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지역의 동료들과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머무는 일의 기쁨과 슬픔을 물었고, 귀촌, 지역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등 관련 분야 멘토들이 답했다. 소그룹 멘토링은 7월부터 12월까지, 전역에서 총 31회 진행됐다.

작은 성공을 제시하는, 관촬아 마을 프로젝트 with 박명호 멘토

2020.07 @전남 목포 공장공장

지역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마을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 나가면 더욱 좋을까에 대한 단서를 얻었어요. 행복한 지역생활 노하우는 잘 메모해 두었습니다. *(김도형 님)*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에 새로운 물결을 내다 with 김지우 멘토

2020.08 @강원 강릉 파도살롱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솔루션을 채워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역의 언어를 나만의 방식과 시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신복 님)*

슬기로운 지역 생활 with 도원우 멘토

2020.08 @경북 문경 산양정형소

로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년들의 질문들에 대한 멘토님의 답변들이 지역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조하은 님)*

야 너도 창업할 수 있어! C학점이 CEO가 되기까지 with 정성준 멘토

2020.09 @온라인 zoom

멘토님의 경험, 청년들과 소통이 돋보이는 멘토링이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생방 소통되는 멘토링이라면 앞으로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수연 님)*

늘면 뭐하능? 뭐하긴, 창업하지! (feat. 뭐 하는 농부들) with 이지현 멘토

2020.09 @충북 괴산 뭐하능

귀촌하고 싶은 마음이라, 먼저 시골에 내려온 분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꿈꾸는 지역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한종원 님)*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멘토링

현대백화점그룹은 청정지역프로젝트의 든든한 후원사였다. 임직원들은 참여 청년들과 1:1 멘토링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멘토링은 유통과 MD, 마케팅,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노하우로 구성됐다.

식품개발 GREATING IS GREAT!

with 주소영 멘토

2020.09 @온라인 ZOOM

식품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멘토님께서 한 호흡으로 식품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세세하게, 주욱 정리해주신 장면이 아직 눈 앞에 선합니다. *(이진기 님)*

멘토님과 함께하는 방구석 독서수다

with 김미지 멘토

2020.10 @온라인 ZOOM

각자 갖고 있는 책에 대한 생각과 책을 고르는 관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멘토님의 겸손한 모습과 다른 분들의 특독 튜는 생각을 보면서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성환 님)*

서울 청년, _____ 지역사회와 같이 걸었다



청년들은 지역기업에서 주 32시간 근무하고, 주 8시간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타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청년들이 지역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만나 필요한 자원을 나누는 따뜻한 활동이다. 지역 아동/돌봄 센터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 청년들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알게 됐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공헌기관 89%는 청년 참여로 지역사회가 활력을 얻었다고 답했다.



“매주 금요일, 농촌 일손을 도와드립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수확철에는 일명 '몸빼 비지'에 장화, 토시를 갖춰 입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농사 일을 돕습니다. 한 번은 1000평 넘는 땅콩 밭에서 온종일 땅콩을 캐어요. 다음 날 온 몸에 알이 배기고 몸이 빠근했지만, 지역의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서 좋았습니다.”

김진아 님(어스팜, 충북 괴산군)

“속초 영랑호는 제가 여기 와서 첫눈에 반해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최근 영랑호에 부교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부교를 설치하면 지금 아름다운 풍경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영랑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고, 자연경관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개별 사회공헌 활동으로 '랑랑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영랑호 주변 쓰레기를 주워 콜라주 작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영랑호의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 매거진을 만들고 싶어요.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김신복 님(개별사회공헌활동, 강원 속초시)

“매주 발달장애아동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술과 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졌어요. 발달장애 아동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보이는 행동은 부자연스럽지만 그 안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우석 님(특수방과후지원센터 우리에듀, 전북 전주시)

“경북 문경 산양면에 있는 아리솔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를 해요. 센터는 공부도 열심히, 놀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아요. 정해진 학습량을 채우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가 같이 축구 하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센터에서 1년에 한 두 번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올해는 함께 참여했어요. 다리 아래서 다같이 돛자리 깔고 먹은 삼겹살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황민건 님(아리솔지역아동센터, 경북 문경시)



“특별히 미술 공모전에 나가는 아이들에게 미술 지도를 해줬어요. 꾸준히 디자인을 해왔던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운 좋게 제 지도를 받은 대부분 친구들이 입상했어요. 제가 한 일은 공모전 가이드를 알려주고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한 것 뿐인데 말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가서 제가 더 기뻐요.”

김연희 님(조은나무지역아동센터, 경북 문경)

“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중등부 아이들과 미드 '프렌즈'를 보고,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프렌즈'를 조금 지루하다고 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지, 더 재밌고 효과적인 컨텐츠는 없을 지 고민 중이에요. 지역에서 만난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재밌게 공부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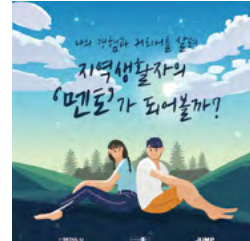



이은수 님(대한지역아동센터, 부산 동구)



History

청정지역프로젝트 1년의 기록

2020

<p>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설계 경북/대구, 강원, 부산/울산/경남, 충청/전라 지역사무국 구성 참여 기업 모집 및 선발 	<p>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 모집 및 선발 '서울 청년, 지역으로 가다' 청년 지원자 모집 	<p>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선발 (온라인 면접) 온라인 사업 설명회(기업) 사회공헌활동 기관 공모 및 선발 	<p>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 기업 근무 시작 청년 추가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관 매칭 서울시 X 현대백화점그룹 X 점프 후원 협약식  	<p>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기관 활동 설명회 기업/청년 사전 참여도 조사 	<p>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살이 줄인 인터뷰 진행 지역-청년 네트워킹 	<p>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청년 네트워킹 지역기업 x 현대백화점그룹 판로 지원 프로젝트 심사 참여자 중간 평가 진행 	<p>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 판로 지원 온라인 품평회 현대백화점 본사 살롱 드 청정 in 안동 <청춘집담:공간에 문화를 입히다>   	<p>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멘토링 온라인 진행 살롱 드 청정 in 부산 <우리가 만드는 마을의 어제, 오늘, 내일> 진행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 판로 지원 온라인 품평회 현대백화점 본사 살롱 드 청정 in 안동 <청춘집담:공간에 문화를 입히다>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 판로 지원 온라인 품평회 현대백화점 본사 살롱 드 청정 in 안동 <청춘집담:공간에 문화를 입히다>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최종 만족도 결과 12월 30일 비대면 성과공유회 개최 
---	---	--	---	---	--	--	---	--	---	---	---

Letters
from
Local

지역에서 온 편지

지역에 내려간 청년들은 매주 그곳에서 만난 경험을 운영국에 보내왔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보낸 이야기를 '위클리 리뷰'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지역기업에 근무하면서 겪은 일의 기쁨과 슬픔, 지역에서 적응하는 노하우, 새롭게 만난 사람과 풍경 등 여러 따뜻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서 만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개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

괴산에 내려온 지 일주일만에 주인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작은 닭장을 만들었어요. 이웃분께 암탉들을 구해 데리고 왔죠. 이름은 알베르토, 세바스찬입니다. 저도 닭띠인지라 조금은 낯선 타지생활이지만 우리 3총사가 잘 지내보자 생각했습니다ㅎㅎ

비오는 날, 사료를 주는 와중에 알베르토가 집을 나갔어요. 전 너무 놀라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도..도와주세요! 외쳤답니다ㅋㅋ 살면서 영화 속 슬로우 모션을 겪은 건 처음이었어요. 닭도 자기가 나가놓고 많이 놀랐는지 5초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치자마자 닭장 뒷산으로 미친듯이 도망갔어요. 하.. 정말 멘붕이었어요. 사라지는 알베르토의 엄청난 속도와 뒷모습이 계속 잔상에 남아 아속했죠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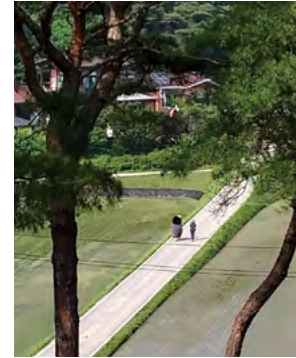
주인집 아저씨의 조언으로 남아있는 세바스찬의 다리에 임시로 줄을 묶고 닭장 문을 열어 놓았답니다. 닭들이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해서요. 혹시 들짐승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지만 알베르토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알베르토는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들짐승한테 잡아 먹히면 어쩌나. 나름 매일 신경 쓰고 잘해줬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되니 괜히 원망도 되고 허탈하더라고요ㅠ 그래서 밤잠을 설쳤답니다ㅋㅋㅋㅋ 다음날 저녁에도, 또 다음날에도 알베르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혹시 오지 않았을까 하고 밖에 나가 확인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슬프지만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알베르토가 우리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우아와악!!!!ㅏㅏㅏ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현재는 두 마리 닭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마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매일 밥 챙겨주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 얻는 재미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FROM 한종원 님(한살림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 1 집 나간 알베르토가 며칠 만에 돌아와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 2 왼쪽이 세바스찬, 오른쪽은 알베르토. 두 닭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유기농업으로 유명한 문당리 마을 풍경입니다.



hoxy~~팽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팽수의 이장일기' 편에 나온 마을이 바로!! ㅋㅋ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흥성 문당리에요~! 팽수에게 이장직을 물려주실 뻔한(?) 이장님이 우리 마을 이장님이시랍니다! 문제는 제가 뒤늦게 팽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촬영하러 왔을 때 알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뒤늦은 후회가 드네요. 그때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은 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소심하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FROM 이지희 님
(흥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군)

춘천의 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 옥상에는 3평 남짓한 텃밭이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했던 서리태가 자라, 밭에 옮겨 심어주었어요.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옆 사무실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술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건 행복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 지역살이는 아직까지 행복한 시간 뿐이네요^^

FROM 전나은 님
(더뉴히어로즈, 강원 춘천시)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연속 참여하고 있네요. 2년 연속 같은 지역공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에 났던 아이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끝나면 그림을 그려주면서 놀아줘요. 한번은 회사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센터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로호튼 작업(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회사 '마르코로호'의 인스타툰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한번도 이런 걸 본 적 없었으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신기해하셨어요.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때 이후로 저에게 멋진 일을 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FROM 성지현 님(알브이핀, 경북 상주시)

졸업한 대학교에서 후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졸업생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청정지역프로젝트와 현재 참여 중인 고구마쌀롱 (속초 여행자를 위한 컨시어지 센터)도 열심히 홍보하고 왔는데요. 후배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뿌듯합니다.

FROM 조연실 님
(고구마쌀롱, 강원 속초시)

지난 7월 우리 게스트하우스
1층에 동네 펍인 안동찜닭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입간판부터 메뉴
선정까지 손 대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팀원들과 함께 으~으~
하며 모든 정비를 끝냈습니다.
안동 구도심의 게스트하우스
고타야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을 재 탄생시킨 경험은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라 더욱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FROM 서미진 님
(고타야게스트하우스, 경북 안동시)



비대면 시대라 아직 카페에 다니기가
부담스럽네요. 요즘은 원두를 구매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푸른 식물, 앞마당이 있는
집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지역이 건네는 여유란 게
이런 거겠죠.

FROM 조성환 님
(동락점병사회적협동조합, 전남 영광군)

우리 회사는 상주 지역의 비혼 한부모
가정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매 시즌마다 보내는 시즌별 수공예품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월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는데요.
팀에 참여한 이후로, 제가 뉴스레터
작성과 발송을 담당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하나가고 있다는 것의
뿌듯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FROM 변장주 님
(알브이핀, 경북 상주시)

우시산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업 특성 상
끊임없이 제안을 만들곤 하죠.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바로 '서울 출장!' 해외 온라인물
입점 지원을 받기 위해 제안서
발표를 해야하는데, 마침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발표자가
되었어요. 대표님은 제안을 만든
제가 이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할
거라고 응원해주셨어요. 회사와
회사의 제품을 어필해야 하는
자리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다른 회사들은
다들 대표님이 오셨는데 저만
신입이라니ㅠㅠ.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15분동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전부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시산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대표해 발표할 기회가
생겨 뿌듯하고, 참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ROM 박수연 님 (우시산, 울산 남구)

뚜벅이로 지역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버스가 없으면 발이
 묶인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에 1대 오는 버스를 놓친 줄도
모르고 기다리거나, 혹은 포기하고
걸어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할 때, 서울을 떠난 것을
 실감합니다. 서울이아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하기도 했고, 택시도 많이
 다니지만 무엇보다 원래 의식이 많은
 성격이라 남의 친절은 의심부터 하는
 성격이었는데, 환경이 변해서 성격도
 변한 건지. 생판 남의 차를 잘도
 얻어 타고 다닙니다! 땀벌의 출근길에
 가는 길이라며 태워 주신 이웃 분,
 1시간 뒤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일부러
 차를 가져와 태워 주신 면사무소
 직원분들까지. 서울에서는 절대
 없었을 일이 지역에서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FROM 정도희 님
(오가네메이커협동조합, 충북 괴산군)



사회공헌활동으로 무농약 농사법에
대해 배우고 마을에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는데요~
밭 근처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톨"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날은 밭에 가는 길에 만나서
조금 놀아줬는데 잘 살펴보니
몸의 색이 이상한 거예요!
보라색으로 염색한 건지,
어디 뒹굴다가 그랬는지,
이상하고 예쁜 보라빛 강아지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FROM 황서연 님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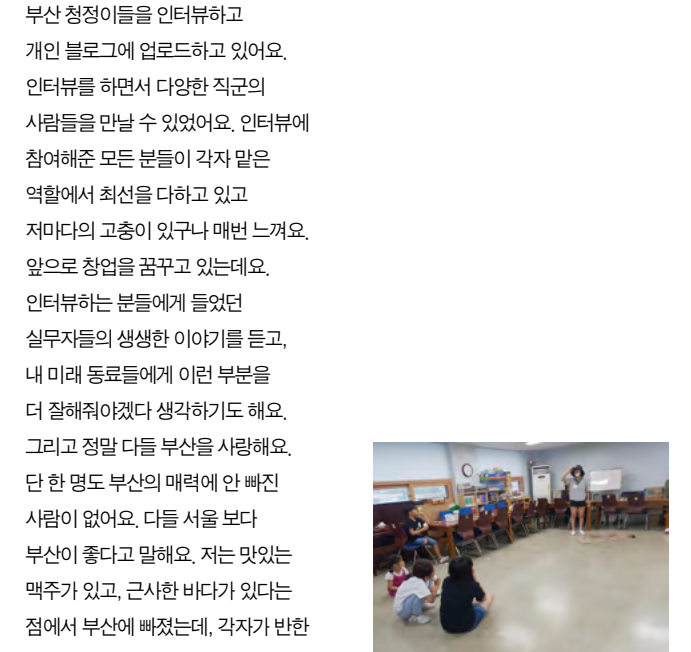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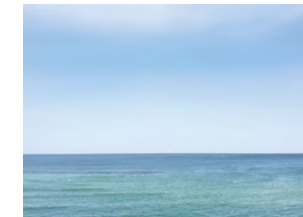
직장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중입니다! 일하는 곳이
동물체험장이라 매일 동물들을
접하다 보니 동물들이 마치 동료같이
느껴지는데요. 애들이 새끼를 낳을
때면 절로 반갑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최근엔 대표님께 회사 로고가
박힌 모자를 선물 받아서 조금
감동받았어요.

FROM 정지은 님
(액션하우스, 전북 익산시)



부산 청정이들을 인터뷰하고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인터뷰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마다의 고충이 있구나 매번 느껴요.
앞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분들에게 들었던
실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내 미래 동료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다들 부산을 사랑해요.
단 한 명도 부산의 매력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서울 보다
부산이 좋다고 말해요. 저는 맛있는
맥주가 있고, 근사한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부산에 빠졌는데, 각자가 반한
매력들이 각각각색으로 많은 걸 보면
부산은 그냥 짱 아니겠어요?!!

FROM 김경호 님
(루메나, 부산 해운대구)



제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곳은
보성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입니다. 이 곳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학년 친구들이
오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무용처럼 표현 예술 쪽을 많이 접하고
배울 수 있었지만, 사회에 돌려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서울에서 연극놀이
하시는 지인분께 말씀드리니 특별히
보성으로 와 주셔서 공동수업을 해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물으니까 다들 손을
너무 적극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다고
해줘서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FROM 박희원 님
(한국천연염색 숭, 전남 보성군)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자 만족도 결과

청정지역프로젝트는 3회(1차 2020.5월 사전 설문, 2차 9월 중간 평가, 3차 11월 최종 만족도 설문)에 걸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 청년, 지역기업과 지역사회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경험과 변화를 얻었는지 중요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청정지역프로젝트 DATA를 통해 <청정지역프로젝트 : 202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도시청년들에게 묻다



왜 지역기업에 지원했나요?

올 초 지역기업이 서울 청년을 모집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이다. 도시 청년은 왜 지역에 머물 생각을 하는 걸까. 지역기업 채용을 통해 '자발적 지역생활자'에 참여한 도시 청년들은 각자의 이유와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 안에는, 지금 청년 세대가 일을 대하는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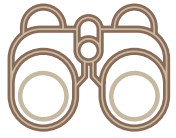
- 나를 찾아** 도시에서 남들처럼 분주하게 살던 어느 날, 문득 생각났다 '진짜 나는 어딴지?'. 도시청년들은 지역에서 나를 만나고 싶었다.
- 일상 탈출** 늘 뭔가 하고 있지만, 뭘 하는 지 모를 때,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다.
- 워라밸** 일상 균형이 깨진 대도시 삶을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고 싶다.
- 가능성** 도시의 스펙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다.
- 탈 도시** 빌딩 숲 너머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그리웠다.
- 지역에서 내 눈높이의 편안한 풍경을 만나고 싶다.
- 같이** 지역은 청년 인구 소멸 위기다. 청년들을 기다리는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
- 고용 불안** 도시의 일자리는 늘 불안하다.
- 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어떤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싶나요?

전국 100여 개 넘는 지역기업이 도시청년 구인에 나섰다. 영농법인에서 스타트업, 관광 레저와 지역자원 개발, 힙한 로컬맥주까지 다양한 업종이었다. 도시 청년들은 어떤 지역기업에 다니고 싶었을까. 지원자들의 채용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7개 키워드를 지닌 지역기업들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대도시의 구직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지역기업은 다양한 선택지였다.



이런 지역기업에 다니고 싶다, 키워드 7



1 여행

도시 소비자에게 여행과 지역의 재발견을 제안하는 일터

2 스토리

지역만이 가진 스토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회사

3 골목재생

사람들이 모여 노후된 골목에 활기를 더하는 사업

4 브랜딩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상품을 디자인하는 곳

5 지리

여행자가 선호하는 지리적 매력을 갖춘 곳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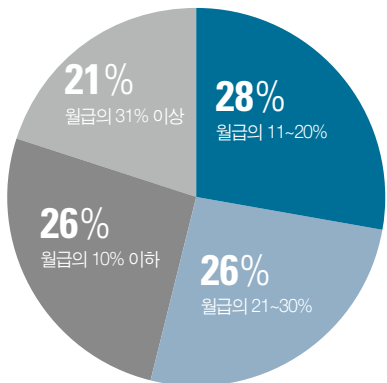
6 안정

관공서 산하기관, 공공재단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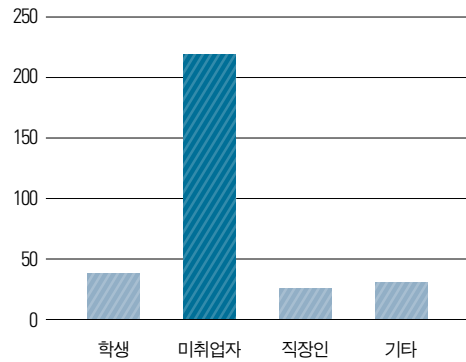
7 힙스터

로컬맥주, 문화공간 등 힙한 작업장

청년 월급, 지역경제 활성화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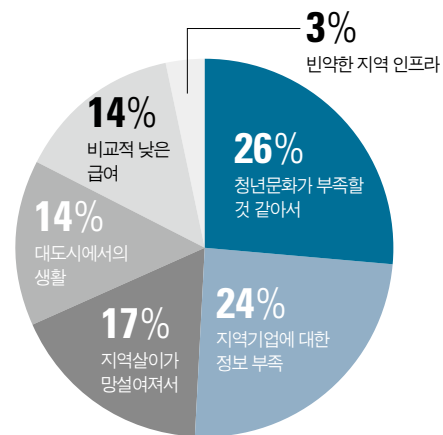


미취업 청년층, 지역 취직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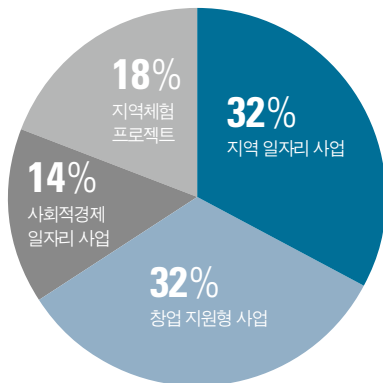
※ 2월 진행된 청정지역프로젝트 지원자 258명 대상 설문에서.

그동안 왜 지역기업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청년 대상 지역연계 사업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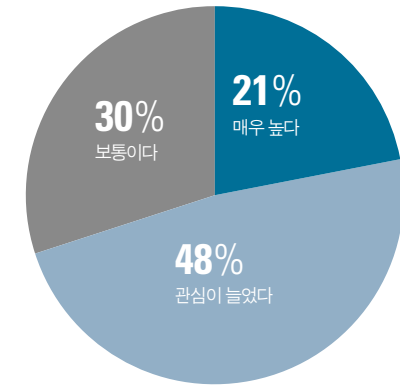
* 청정지역프로젝트 제외



도시청년들에게, 지역생활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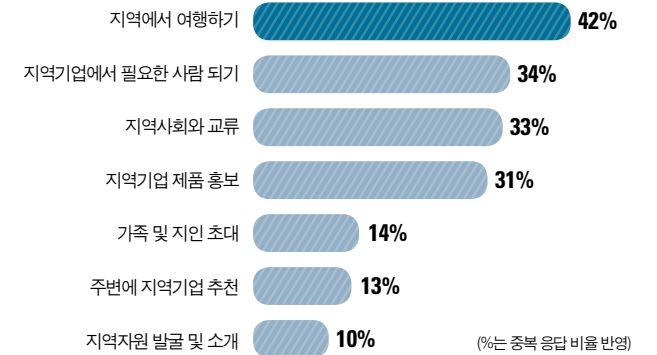


지역기업 채용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높아졌나요?



※ 청년들은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층의 지역생활에 대한 관심은 70%로 30대(62%)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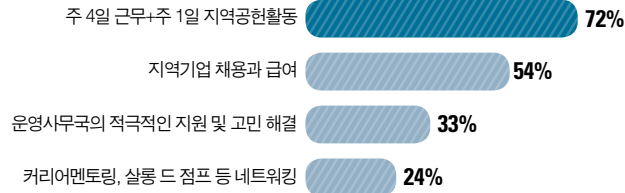
도시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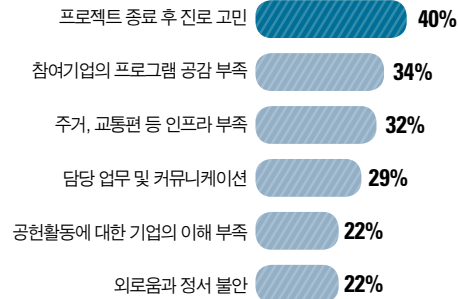
지역에서 일하는 보람을 묻다



청정지역프로젝트, 이런 점이 좋았다!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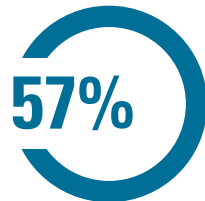


프로젝트 종료 후, 지역에 더 머물 예정인가요?



※ 참여자 절반 가량은 현재 기업에서 근무 연장, 청정지역프로젝트 재참여, 창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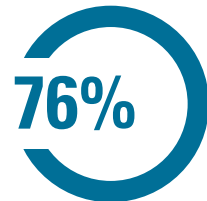
지역에서 행복했나요?



나는 지역에서 더 행복해졌다

Tip

85% 서울시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지역기업 채용, 주변 친구에게 적극 추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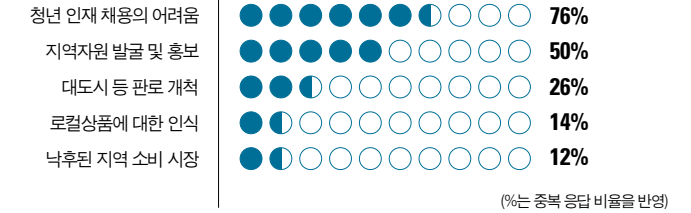
84% 서울시의 청년 정책 및 사업에 긍정적이다

지역기업에 묻다



지역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지역기업은 가장 큰 고민으로 젊은 인재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기업 규모가 작고 기업 지속 연수가 오래된 지역기업일수록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청정지역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됐다 **87%**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87%**

앞으로 도시청년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82%**

기업이 얻은 경제적 효과

76% 인건비 경감

45% 도시청년 지역 유입

42% 우수 인재 채용

34% 조직 업무 효율성 향상

참여기업 DATA 5인 이하 사업장 60% 지속 연수 3년 이하 기업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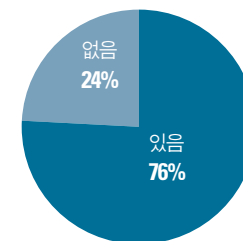
내년에 계속 고용할 계획입니까?

고용 연장=
청년 52명(정규직 전환 15명)+지역기업 3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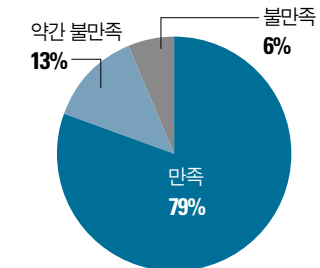
(11월초 기준)

타 일자리 사업 대비 청정지역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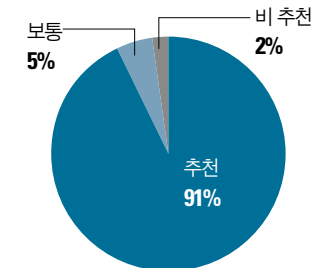
1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나요?



2 타 일자리 사업 대비 청정지역프로젝트 만족도



3 주변 기업에 청정지역프로젝트를 추천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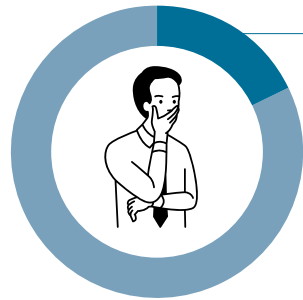
이런 서울청년을 뽑고 싶다

성실한 근무 태도 >> 긍정적인 마인드 >> 기업 문화 적응력 > 지역기업에 대한 애정

도시청년과 지역기업 커뮤니케이션

기업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
지역생활 만족도 UP



16%

청년 근로자와 가끔 세대 차이 느낄 때가 있다

※ 도시청년들은 지역기업 근무가 처음인 경우가 많다. 낯선 지역에 내려간 청년 입장에서 기업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부분. 기업과 의사소통이 잘 됐다고 답한 청년들의 경우, 지역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 지역이건, 일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로 지역기업은 힘들었다

80%

코로나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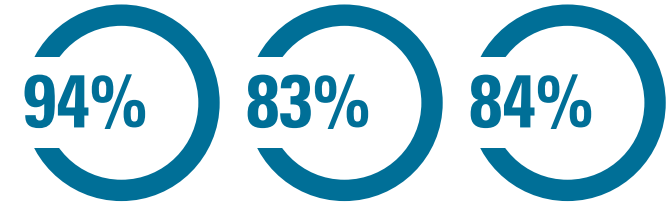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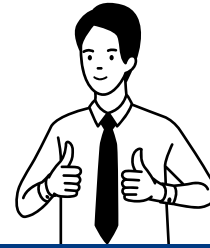
87%

청년 채용이 코로나 어려움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요청합니다

- | | | | |
|--|---|---|--|
| <p>1</p> <p>1년 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되면 좋겠다</p> | <p>2</p> <p>프로젝트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안 될까요?</p> | <p>3</p> <p>주거, 교통편 등 지역생활 청년 인프라 지원</p> | <p>4</p> <p>더 좋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지원하면 좋겠네요</p> |
|--|---|---|--|

지역공헌기관에 묻다,
도시청년들의
지역공헌 어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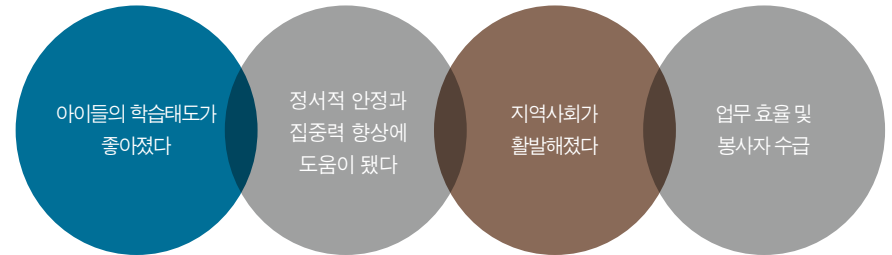
94%
내년에 또 도시청년을 만나고 싶어요

83%
지역사회의 긍정성이 늘었다

84%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청년들이 더 오래 머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봉사 썸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교육 효과 및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청년 참여로 지역사회가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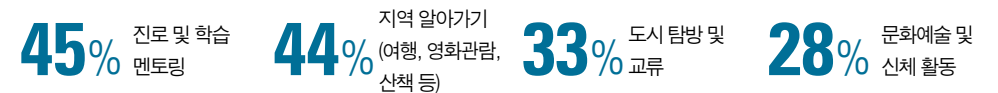
아이들의 학습태도가 좋아졌다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지역사회가 활발해졌다

업무 효율 및 봉사자 수급

청년과 함께하고 싶은 공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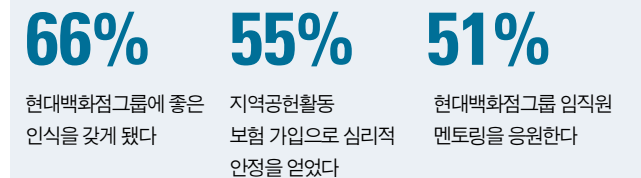
45% 진로 및 학습 멘토링

44% 지역 알아가기 (여행, 영화관람, 산책 등)

33% 도시 탐방 및 교류

28% 문화예술 및 신체 활동

현대백화점그룹(후원사) 만족도 결과



66% 현대백화점그룹에 좋은 인식을 갖게 됐다

55% 지역공헌활동 보험 가입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51%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멘토링을 응원한다

Dear
My
Friend

우리는 지역생활 [짝꿍]입니다

지역에는 사람이 귀합니다. 청년 인구 소멸이라는 딱딱한 단어를 쓰지 않고 싶지만, 그만큼 청년 인구가 적습니다. 지역에 내려가 사람을 만날 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서울청년이 지역에서 만난, 소중하고 따뜻한 지역생활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지역생활 에세이 '서울아가씨 화이팅' 저자 노니&키티

우리에게지역은 가능성이죠.
생각하는 만큼 길을 열어줘요

노니(박은정, 상주다움협동조합)는 글을 쓰고 키티는 그림을 그렸다. 올해 두 사람은 '서울아가씨 화이팅'이라는 독립 서적을 출간했다. 상주의 포근한 햇살이 느껴지는 초록빛 고운 책. 상주에 살며 느끼고 경험한 것을 모아 글과 그림으로 담아냈다. 키티와 노니는 서울 아가씨였고, 지금은 상주에서 지내며 활동하고 있다. 노니는 작년 여름 청정지역 프로젝트 1기에 참여하며 상주에 오게 되었고, 2기에 참여하며 조금 더 살아보기로 했다. 키티는 노니보다 1년 먼저 내려온 선배다. 귀농을 꿈꾸던 남편과 함께 내려와 남편은 농사짓고 키티는 그림을 그리며 사업을 한다. 두 사람은 어떻게 짜깁이 되어 함께 책을 내게 되었을까? 지역은 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터뷰 장소는 상주 시내의 작은 책방 '좋아하는 서점'이다. 책을 좋아하는 노니가 100일간 문을 여는 동네서점이다.

Q 책을 낸다는 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의 하나죠. 지역에서의 시간과 기억을 책으로 낸다는 건 두 분께 어떤 의미였나요?

(노니) 지역에서 우리의 기록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읽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평소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응했거든요. 나는 글을 기록하고, 키티는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 기록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상주에 잘 정착하기 위한 마음이 컸어요. 지금 머문 곳에서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으면 나를 소개하기 수월할 것 같았어요. 키티는 이미 자기만의 분야를 확고히 해서 지역

작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주에 저처럼 뜻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키티) 맞아요. 지금은 친해져서 잊고 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노니가 필요했어요. 노니가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 마음을 도와주고 싶어요. 책은 글이 참 중요한데 제가 노니 글을 좋아하니까요.

노니는 연구 없던 상주에 오면서 상주의 이것저것을 찾아보던 중 SNS를 통해 키티를 알게 되었다. 시골 감성을 담은 그림에 반해 키티의 팬이 된 노니가 근무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키티를 섭외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상주를 그리는 키티처럼, 노니도 상주를 글로 담았다. SNS에 꾸준히 공유했고 키티는 그 글을 좋아했다.

Q 두 사람을 '짜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노니)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먼저 귀촌한 사람들은 세대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끌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지역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중 나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착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은 키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Q 우리가 지금 지역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비교군은 아무래도 서울 혹은 대도시와 거리감일 텐데요. 대도시와 떨어진 그만큼의 거리에서 무엇을 얻고 있었을까요?

(키티) 처음엔 저도 그런 걸 따졌는데, 지금은 다 모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느낌? 명확하게



그림 그리는 키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노니(우측)가 공동 제작한 지역생활 에세이 '서울아가씨 화이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계산하기 어려워요.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시달리듯 하다 보니 '서울은 나빠. 서울은 죄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살아보니 서울은 죄가 없어요. 결국은 나와 나를 둘러싼 삶의 방식의 차이랄까요. 귀촌한 친구들과 재미 삼아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거든요. 저와 노니, 친한 카페 사장님, 상주에 내려와 옷 짓는 언니와 피자 굽는 언니들이 다 -NFP(자유롭고 감성 풍부하고 열정적인 유형)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유형이면 지역에 내려와도 좋을 거예요(웃음) (노니) 상주에 와 얻은 게 있어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서울에서는 제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휴 찜찜 현실감 없네' 이런 반응이 많았고, 이해보다는 격정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저도 스스로 '나는 왜 저렇게 못 하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구요. 여기 와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있으니 참 편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안정감이 있어요.

Q 만약 친구가 '나 지역에 내려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주실 건가요?

(키티) 솔직히 친구에게 "뭐 힘든 일 있어?"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내려와서 살아보고 할 것 같아요. 짧게 3개월이라도 먼저 살아보기! 미리 다 정하지 말고, 잠시 머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노니) 그냥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때에 내려오는지, 무얼 할 건지, 어디에 살 건지, 누굴 만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도 그럴 거라, 제가 먼저 판단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열 받아도 논이 펼쳐진 풍경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 좋을 수 있겠죠. 솔직히, 지역은 서울보다 기회가 적어요. 혹시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서울이 싫어서라면, 그건 위험한 일이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너 알아서 해'. 정말 내려오면 제가 끌어주겠죠. 제가 지역에서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Q 요즘엔 로컬이 유행하면서 지역 경험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오랜 지역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뭡까요?

(노니)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예요. 사람 또 사람! 제가 서점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 맞춤 테이블 제작할 때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옆에 화이트 테이블을 놓는 아이디어는 키티가 줬고, 또 장식할 액자 그림을 받았고요. 옷 만드는 언니가 여기 천을 만들어주고, 옆 카페 사장님은 이것저것 갖다 쓰라고 해줬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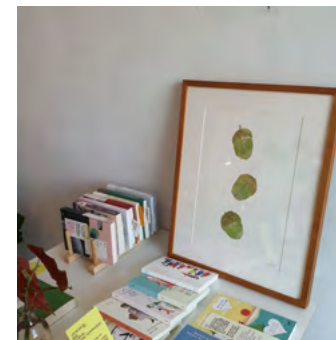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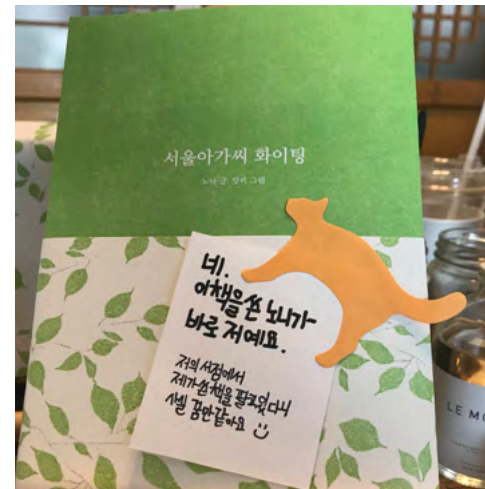
책에 찍는 도장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여긴 나만의 서점이 아닌 거죠. 누가 서점이 예쁘다, 대단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줘요. "네, 멋지죠. 여기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Q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게 지역이란 OOO다

(키티) 내게 지역이란 '리부트'이다. 서울에 살 땐 그곳의 삶에 착실하면서 그 삶밖에는 몰랐어요. 한 발자국 떨어져 왔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컴퓨터 리부트 버튼 누르듯 새로워졌어요. 갑자기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제 성향도 많이 달라졌고요. 서울에 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매치가 하나도 안 돼요. (노니) 저라는 사람 자체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음, 내게 지역은 '가능성'이에요. 원래 생각했던 걸 실현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언젠가 서점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회가 자꾸 생기니까 해보게 되었고요. 내 안에 있던 게 피어난 것. 그걸 가능성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서의 스트레스와는 달라요. 내 것 하는 느낌! 나에 대해 훨씬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긴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 반대편에서 가능성이 생겨요. (키티) 맞아요. 여기서는 되게 힘든데 안 힘든 느낌이 있어요. 살아가는 비용이 낮다는 장점도 크죠. 한 달에 월세로 어마무시하게 나가면 이렇게 서점을 열고, 여유롭게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웃음)

때마침 서점에 손님이 방문했다. 아쉽지만 그만 인사를 나누고 책방주인 노니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자리를 정리했다. 여기는 손님이 적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뭐든 많지 않아서, 그만큼 더 소중한 곳. 그곳에 노니와 키티가 함께 머물고 있다.

글쓴이 유혜인은 청정지역프로젝트 1기로 참여했다. 경북 상주의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노니와 함께 근무한 동료. 현재 1기 지역공헌활동으로 참여한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언니네텃밭>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좋아하는 서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열 수 있었다. 맨 처음 책을 진열하는 맞춤 테이블을 제작하면서부터 도움이 시작됐다. 그 옆 화이트 테이블을 놓는 아이디어는 키티가 줬다. 옷 만드는 언니는 천을 만들어주고, 옆 카페 사장님은 이것저것 갖다 쓰라고 했다. 그렇게 동네 작은 책방이 문을 열었다.

조상화님과 '춤추는 발레' 팀

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좌부터) 춤추는 발레 팀원들. 이에서, 엄유정, 조상화 청년, 이연지, 윤서연, 김이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자랑과 사랑이 넘달랐다.

10월 중순 강원도 영월의 짜깁을 만나러 가는 길, 국도는 아름다운 가을빛이 물들고 있었다. 짜깁들은 영월군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활동 강사로 참여한 조상화님과 5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발레를 전공한 조상화님은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발레 수업을 열었다. 저녁 6시. 서울에서 내려온 꽃미남 급 청년 선생님을 둘러싼 다섯 명 아이들은 발레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생님과의 장난치고 말 거는데 관심이 많다.

“선생님은 여자 같아요~~”.

아이들은 도시에서 온 젊고, 선(동작)이 굵고, 말투가 나긋한 선생님을 그렇게 놀렸다. 두 아이는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곧장 온터라 태권도복이 발레복이다. 겨우 시작된 발레 수업. 포인-플렉스(Point-flex) 발등과 끝을 동글게 말고 펴는 발레의 기본 동작.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더 크다.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발레를 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면 좋겠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다가 문득 깨닫는다. 지역에서 막연한 미래를 제법 정리했다는 청년의 말과 “선생님께 발레를 배워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깨달은 것! 그날 우리는 ‘춤추는 발레’가 아니라 ‘꿈꾸는 발레’를 만났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할까요.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영월군스포츠클럽에서 아이들에게 발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3개월 간 1기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9월에는 코로나 탓에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10월부터 2기 아이들과 발레를 시작했어요.

Q 발레수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발레 전공자인데요, 여기서는 스포츠 강사로 참여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팀장님이 전공인 발레를 활용해 ‘홈트(홈피트니스)’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셔서 온라인 수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지역은 도시와 달리 발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나 기회가 적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기뻐요.

Q 한때 발레는 자신의 가장 큰 꿈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한 발레는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한때 발레는 제 전부였지만, 어느 순간 이 길이 내 길일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졸업하고는 발레를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영월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재미있구나, 새로운 경험이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면, ‘발레 선생님’하면서 반겨주는데 그러면 기분이 묘하고, 보람을 느껴요.

Q 지역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얻은 건 뭡까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뭡까? 그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고민이 이어졌고, 명확한 답을 찾진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문득 깨달아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볼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보고 있어요. 나와 만나는 아이들에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발레라는 예술 활동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조하준 님과 양반문구점

우리 동네 문방구 캠페인,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올해 청정지역프로젝트에는 지역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됐다. 지역에 머문 서울청년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로컬라이트>가 그것. 조하준 님의 로컬라이트는 “우리동네 문방구 되살리기 캠페인”이다. 동네 문방구들이 시대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꽤 많은 문방구들이 폐업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 한 군데 정도만 명맥을 잇는 중인데, 이마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를 일이다. 하준님은 아이들의 문화놀이터이자 사교장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시태그가 있다. #그때그시절 #문방구 #레트로플레이 #뉴트로 #로컬라이트 #지속가능성. 사라지는 많은 것들 중에 왜 문방구였을까. “아이들의 문화 놀이터인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변 대형마트 입점과 학교 준비물 무상 지원 제도, 외면하는 학부모 탓에 문방구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성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죠. 문방구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플랫폼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울청년을 만나 흥이 났어요

양반문구는 안동 서부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다. 서부초등학교에는 총 3곳의 문방구가 아직 버티고 있는데, 정문 쪽이 그 중 활발하다. 양반문구는 후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20m 정도 거리에 있다. 양반문구와 분식점(다래분식)이 다정한 모습으로 맞붙어 있다.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낡은 벽에



양반문구는 안동 서부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다. 청년은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동네 문방구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페인팅을 칠하고, 장난감들이 빛에 바라지 않도록 유리창엔 햇빛 차단 필름을 붙였다. 바닥에는 기분 좋은 느낌의 롤잔디를 깔고, 녹색의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활용해 깔끔한 진열대를 만들었다. 진열대 위에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라임, 인기 캐릭터가 담긴 휴대폰 팝소켓, 추억의 공알탄과 간식거리 등이 놓였다. 서울청년의 손길 덕에 문구점은 조금 더 깔끔하고 예뻐졌다. 양반문구 감미화 사장님은 10년 째 여기를 지키고 있다. 청년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 덕에 아이들 손님이 제법 늘었을까. 팔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한 장난감 개수만큼 사장님의 한숨이 늘었다. “아이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많아 안 나왔잖아요. 아침에 반짝 준비물 사러오는 아이들도 안 오고, 오후에 간식 먹으로 웅기증기 오던 아이들도 없고요. 아이들이 하교하면 문구점 앞에 학원차가 셋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운영을 못 하니깐, 아이들 만나기조차 힘들네요. 제가 여기서 10년째인데 올해가 가장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지역의 작은 곳부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을 만나 활기를 얻었다는 설명. “학교 후문쪽이라 정문보다는 발걸음이 덜하거든요. 하준님이 가게 진열이나 환경을 깔끔하게 해주고, 여기저기 문방구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 반가웠죠. 누가 동네 작은

문방구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나요.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지. 어려운 시기에 서울청년을 만나 그래도 흥이 났어요”.

지역의 '작은 영웅'이 되어주세요

하준님은 청정지역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서울에 살았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서울에서만 살아온 서울촌놈이다. 렌터카 회사, 광고회사, 행사 기획, 와인 공부 등 다양한 호기심을 좇던 20대는 독립을 생각하며 잠시 쉬을 것다가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올해 2년 차. 안동의 고타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자로 열심히 참여 중이다. “서울에서는 늘 긴장된 삶이었어요. 일할 때 긴장하고, 휴식 실수하는 상황이 생기면 많이 힘들었죠. 지역은 사람들이 대체로 너그러운 편이라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빠르고 타이틀한 업무를 경험해서인지 지역에 도움을 줄만한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서울의 경험이 지역에 필요하고, 나도 쓰임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역이 내게 좋은 경험, 기억을 준만큼 나도 지역에 뭔가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준님의 지역 프로젝트는 2기로 구분되고 있다. 첫 해엔 경북 지역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채널명은 '경북 사는 남자'를 줄인 '경사남' 이었다)을 운영했다. 지역의 예쁜 장소를 도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스쿠터를 타고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올해는 지역의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졌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살아남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서부초등학교 후문, 다래분식 옆 양반문구의 미래는 어떨까. “여기 주변을 보세요. 대형문구점이 생기고, 다이소도 있고, 대형마트에서 문구류를 팝니다. 저 거리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생겼네요. 단골 아이들과 엄마들이 다 그쪽으로 향하는데, 문방구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지요. 학교 앞 문방구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아마 양반문구가 가장 먼저 사라질 지도 모르죠.” 동네 문방구의 긴 한숨 앞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다. 문방구 안에는 장난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의 바람대로, 우리동네 문방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대형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동네 문방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사라지는 것들이 아쉬워서, 뭐라도 해보려는 청년의 '우리동네 문방구 캠페인'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웅' 같았다.

김예빈·도형 남매의 슬기로운 지역생활 어린시절 짜깁이 지역생활 어른이 되었습니다



동생 김도형 님(대구 메이드인피플)은 농촌 콘텐츠 기획자로 근무 중이다. 경북 의성 안계면에서 도시청년들이 모여 6주 동안 농촌살이를 체험하는 <청춘구 행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해 청정지역프로젝트 1기 참여에 이은 두 번째 지역생활이다.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된 누나 김예빈 님은 동생의 적극 추천으로 지역기업(안동브루잉컴퍼니, 디자인 및 마케팅)에 참여했다. 동생은 대학교 휴학 중이다. 휴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과외활동, 어학연수 대신 지역살이를 선택했다. 지역에서 조용하게 진로 고민을 할 계획이었다. 누나는 학원에서 미술 및 영어 강사를 했다. 올 초 코로나가 덮치면서 학원은 휴원에 들어갔고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됐다. 고민이 많던 그 시기, 동생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며 적극 응원했다.

누나는 반려견과 함께, 동생은 청년행복장터로 소통

누나는 로컬맥주를 만드는 안동브루잉컴퍼니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새로 출시되는 맥주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SNS 마케팅을 돕는다. 청년의 '슬기로운 지역생활'에는 반려견 '허니'가 함께 했다. 반려견과 함께 지역근무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회사가 오케이 했다. 덕분에 부업이 생겼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애완견 사료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

"디자인 업무는 제가 많이 경험해본 일이 아니라서 잘 할 수



남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사진을 받았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 둘은 언제, 어디서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며 환하게 웃었다.



있을까, 걱정됐어요. 제 고민을 들은 동생이 '누나, 이걸 경력자를 뽑는게 아니라 지역에 내려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청년을 뽑는다'고 말해주 힘이 났죠."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청춘구 행복동>은 도시청년들이 6주 동안 농촌살이를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동생은 낯선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축제 '청춘행복장터'를 연 게 기억에 남는다. 청년들은 안계면의 예쁜 시골풍경을 담은 수제비누와 엽서 등을 만들고, 지역민은 복숭아 등 지역특산물을 내놨다.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장터에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은 도시청년들에게 흥미로운 기회

서울 청년들은 무한경쟁에 치여있고 구직난에 시달린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고령화가 걱정이다. 202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도시청년을 지역에 채용, 서로 활력을 찾자고 시작됐다. 남매는 도시vs지역생활을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사는 곳은 논공 단지와 가까워요. 봄부터 가을

추수까지, 논들의 변화를 다 봤어요. 아침저녁으로 반려견과 산책합니다. 매일 바뀌는 풍경을 보며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죠. 도시와 달리, 더 느긋하게, 단순하게 살아본 것 같아요(김예빈) "누나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최근에 누나 친구들과 영덕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서울에 있으면 서로 바빠 이런 추억을 못 만들텐데, 서로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누나가 나보고 의젓해졌다고 하는데, 글썄요, 지역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까요(웃음)." 서울청년의 지역살이 프로젝트는 12월 마감된다.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일단은 복학할 생각입니다. 너를 돌아갈 곳이 있어서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졸업하면 첫 직장을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요.(김도형) "지역에서 일자리가 보장된 프로젝트잖아요. 지역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살이볼 수 있다는 건 큰 혜택 같아요. 여기 안 왔다면, 맥아를 이용한 애완견 사료는 생각도 못했겠죠. 지역에 머물면서 '부캐'(부 캐릭터/애완견 사료 제조)까지 얻었네요(웃음)."(김예빈)

전혜인·정세현 매니저와 최하은 님 지역에서 유쾌한 짜깁이 되는 법



부산의 짐캐리는 여행자 편의를 돕는 스타트업이다. 부산 여행자와 출장객의 많은 짐을 숙소까지 운송 대행하거나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짐캐리는 부산 동구 초량동 오래된 동네에 '영초산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이다. 영초산방은 산복도로를 끼고 있다. 부산에 모인 이방인과 피란민들이 각자 사연을 담아 산동네에 집을 지었다. 가파른 골목길을 매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힘들어, 골목 사이를 잇는 도로를 만들었다. 산복도로는 사전적으로 산의 중턱을 잇는 도로, 가파른 동네의 가장 위까지 이어진 도로를 말한다. 초량동 산복도로는 1964년 부산 최초로 개통됐다. 골목의 재발견 속에서, 부산 초량동처럼 원도심의 매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연 많은 산복도로는 이제 지역을 느끼면서 산책하기 좋은 길로 사랑 받고 있다. 햇빛 반짝이는 지붕, 색이 예쁜 대문,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아기가기하게 자리 잡은 카페와 맛집, 산방지기들은 이 골목길을 "소소한 우연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청정지역프로젝트 매거진 팀이 초량동, 영초산방을 찾이간 이유가 있다. 여기 일로 만난 사람들이 무척 즐겁고 흥미롭게 지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였다. "영초산방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과 쿵짝이 너무 잘 맞는다. 일로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잘 지내는 이유가 뭐지?" 산복도로를 낀 매력적인 동네가 있다. 그 안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청정지역프로젝트의 짜깁을 만났다. 전혜인(책임 매니저), 정세현(매니저), 최하은(서울 청년) 세 명이다.

Q 세 분은 어떤 이유로 이 곳에 모였나요?

(정세현)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산이 좋아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최하은)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해 보고 싶었는데, 뭔가 그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테스트의 기회를 얻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부산의 바다를 보고 싶었고, 겸사겸사 부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Q 영초산방에서 발견한 지역과 동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전혜인) 부산관광공사 지원 사업으로 산복도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1박 2일 동안 산복도로를 흠뻑 걷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김해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고, 이런 로컬 콘텐츠가 가능하구나, 김해의 어느 동네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산의 산동네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 에너지를 나눠서 기뻐죠. (최하은) 여기, 이곳에 여러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우리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산복도로를 산책하는 여행을 했죠. 다들 너무 좋았대네요. 친구들을 '취향 저격'한 거 같아 너무 뿌듯했어요. 저 역시 자주 동네 산책을 하는데, 여전히 너무 좋네요.



(좌부터) 정세현, 전혜인(매니저)과 최하은 청년. 지역과 함께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만들자는데 분명한 동기가 있어서 좋은 팀이 됐다고 말했다. 셋 다 마라탕을 좋아하는 것도 짜깁의 이유.

Q 서로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팀웍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하은) 일단은 자유로운 분위기가랄까요. 직책을 떠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아요. 또 우리가 먹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데(웃음), 음식이 사람 관계에서 좋은 매개체가 되잖아요. 다들 마라탕을 좋아해요. 좀 느긋한 점심시간에는 마라탕면을 끓여 같이 나눠먹으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요. 그런 친밀한 시간들이 쌓인 것 같아요. (전혜인)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건 분명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곳이 좋은 로컬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산복도로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가진 여유로움과 풍경 때문이거든요. 동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지는 말자, 여기 풍경처럼 우리도 좀 천천히 걸자, 우리가 하고싶은 일을 만들자는 동네적 키워드를 발견했거든요. 지역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서 좋은 팀이 된 거 같아요.

Q 올해 지역이 내게 건넨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정세현) 올해 하은님이 합류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둘은 계획만 잘 하는 인간형이라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셋이 모이면서 실행력이 커졌던 한 해라고 할까요. 코로나 탓에 여행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함께 있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최하은) 앞으로도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는데, 뭐랄까, 그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구요. 또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어요. 뒷보단 '마라탕면'을 함께 나눠먹는 사이가 되어 너무 좋구요(웃음). 지역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에 새로운 맵을 열어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봤다고 할까요. 새로운 지역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 인생도 '업데이트' 됐어요.

안소영 님과 주상권 대표

지역에서 시작한 청년의 날들



“빛나는날들은 속초 지역을 기반으로 강원도 일대 로컬 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영상 프로덕션입니다.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아 지역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기간 동안 많은 작업을 하면서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어요.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 청년을 채용합니다”.

지역은 사람이 필요하고, 서울 청년이 응답했다. 서울에서 IT/개발 관련 회사에 다니던 안소영 님은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빛나는날들에 매칭됐다. 영상 관련 전문적인 기술은 부족했지만, 배우려는 자세와 열정으로 어필했다.

익숙한 서울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자는 청년의 시도는 그렇게 시작됐다.

1인 영상 업체인 빛나는날들은 속초 시내 발레 학원 속 자투리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발레 학원의 외주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작업물에 만족한 학원 측이 사무실 공간을 제인했다.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을 담겠다는 청년의 꿈은 크다.

청년은 이곳에 와서 일에 필요한 영상 제작/편집을 하나씩 배웠다. 주 대표는 지역에서 함께할 사람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가르쳤다. 요즘 소영님은 자신의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지역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반가웠다.

Q 지역에 내려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여기서 하는 작업이 늘어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점에 소영님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영상 전공자가 아니라 잘 적응할까 싶었는데, 회사에 필요한 요구에 맞춰 잘 따라와주셨어요. 영상에 열정이 있어서 일도 정말 빨리 배웠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 성장한 거 같아요. 지역에 혼자 내려와 힘든 점이 있을텐데, 잘 적응해주셨구요. 소영님 오고 초반에는 너무 일에 치이지 않으면 좋겠다, 속초라는 지역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청정지역프로젝트의 의미처럼, 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기'를 차분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Q 올 초 진행된 면접 때의 첫 인상을 기억하나요?

원래는 영상 경험자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영님의 열정과 자세에 반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지역에서 일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일을 대하는 열정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Q 대표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속초로 U턴하셨어요. 서울에 더 기대지 않고 일찍 돌아온 이유가 있나요?

저는 좀 천천히, 여유롭게 가고 싶었는데, 서울 생활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영상 업종을 보면, 서울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지역은 어떻게? 눈을 돌렸는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게 됐죠.

지역에서 청년의 시간은 어떻게 흘렀을까. 영상 작업은 처음, 속초에서의 혼자 생활도 처음. '처음'이 많은 그 날들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Q 낯선 지역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빛나는날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존중 받는 느낌이었어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런 딱딱함 보다는 '이런 일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만큼 해보실래요?'처럼 서로 배려하며 일을 배웠거든요. 일이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어 편했죠. 스스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견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일 하는 사이의 존중과 배려! 그래서 직원으로서 나도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는 동기가 커진 거 같아요.

Q 지역살이에 지원한 계기는 뭔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가장 컸어요. 영상 작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역의 여유있는 장소, 다른 시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속초에서 저도 어느 만큼 성장한 거 같아요.

Q 지역에서 1년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제가 원래 밖에 잘 만나가는 '집콕' 성향인데, 여기서는 자주 나갔어요. 산도 바다도, 걸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만나는 풍경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출퇴근길에 바쁜 지하철 안타도 되고, 시간이나 풍경이 여유로운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문득 깨달아요. "맞아, 어디서든 일자리는 있어! 또 어디서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라고요. 요즘 개인적으로 단편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미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SF적이예요(웃음).

Q 앞으로 지역에 더 머물 계획이가요?

솔직히 내려올 때는 너무 오래 있지는 말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속초와 빛나는날들을 만나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역도, 회사도,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서 더 시간을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 해도 얼마나 오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속초와 사람과 회사가 좋아서, 더 오래 머물기로 했다.



Local
Keyword

내게 지역은 [] 이다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서울청년과 지역기업, 지역공헌기관을 두루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역에서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머문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지역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생각을 담아 각자의 [괄호]를 채웠습니다.



참여청년
인터뷰
01

내게 지역은 [영양제] 다

이진기 님(경북친환경영농조합, 경북 군위)



“사무국에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 청년들은 주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청년들은 지역생활을 묻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한 주를 돌아본다. 운영국은 주간 보고서를 보며 지역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살핀다. 청년들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되레 운영국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청년들 만나려면 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이진기님은 지역에서 따뜻함을 채워 나가고 있다. 취미로 배운 사진은 지역기업의 상품 촬영에 특특히 힘을 발휘했다. 지역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 쌤으로 활동 중이다.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에는 많은 지역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어떤 지역기업에 지원 할까, 고민하면서 나만의 선택지를 정했어요. 일단은 친환경! 저는 항상 지구에 자취를 남기는 것에 대해 고민해요. 그런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역 농산품을 관리하고 알리는 곳들로 추려졌어요. 지금 회사는 친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채용 공고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목이 있어요. 나를 지역기업으로 이끈 한 문장이라고 할까요.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아, 청년의 생각을 묻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회사구나! 이런 곳이라면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어도 나를 인내해주고 키워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분 좋아지는 일, 라이브 커머스 완판

몇 달 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했어요. 급하게 참여한 프로젝트라 걱정이 앞섰죠. 당장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준비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던 일이었는데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상품이 완판 되었어요. 저렴한 가격과 동행세일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완판은 대단한 일 아닌가요. 매일 올라오는 따뜻한 후기들을 보면서 괜히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직접 개발한 상품도 아니고 개발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지만, 괜히 제 입꼬리가 근질근질해지고 마음이 울컥 했거든요. 그 이후로 나의 생각과 에너지를 지역회사를 위해 더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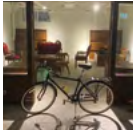
조급하지 않아서 만나는 행복

군위에 내려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난해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가 지역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군위에 내려간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다들 장난치지 말라고 ‘군위가 어디냐?’고 물었죠. 군위에 살아보니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도시에서 하던 직장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나누고, 그렇게 다른 게 없구나 싶어요. 작은 지역일수록 큰 도시에는 없는 정서가 있어서요. 그 다음이 지역의 힘함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성과를 내야해서 하는 일들에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위에 와서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고요. 강박적이고 성급했던 태도가 바뀌면서 일상이 편해진 것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뭔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나만의 로컬 아이템은, 유산균과 오메가3

지역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은 유산균과 오메가3예요. 오라실에서 오락을 할 때, 실력이 안 좋으면 제 캐릭터가 금방 죽잖아요. 그럼 그 판을 못 끝내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내 수중에 코인이 있으면 오라기에 계속 넣고 도전해서 끝까지 엔딩을 볼 수 있어요. 매일 잊지 않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어요.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코인을 집어넣는 중이라고요(웃음). 여기 와서는 일하던 생활이던 길게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당장은 못하는 일이더라도 제 인생 코인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 1 회사 앞으로 눈발이 펼쳐진다.
- 2,3 친환경 꾸러미를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청이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완판됐다.
- 4 자연을 머금은 풍경이 늘 좋다.



참여청년
인터뷰

02

내게 지역은 [U턴]이다

진상연 님(세종힐링의원, 강원도 춘천)



- 1 춘천의 야경
- 2 매달 농부의 시장이 열린다. 시장에서 소주 칵테일을 만들었다.
- 3 세종힐링의원 지하 공간에 손님 접대 공간을 만들었다.

춘천은 나와 가장 잘 맞는 공간

고등학생 때 서울에 올라왔으니 다시 고향 춘천에 내려와 지내게 된 건 거의 10년 만이네요. 서울에서는 호텔리어 일을 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인정을 받으면서 지냈지만 화려하고 치열한 생활, 빌딩 숲에 가로막혀 지내는 도시 생활이 저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퇴사하고 지내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청정지역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제 고향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춘천에 다시 돌아오니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의 춘천과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지만, 저에게 춘천은 가만히 있어도 힐링되는 곳인데요. 어디를 봐도 산이 보이는 자연스런 풍경들이 여유롭게 만들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해줘요. 춘천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연스런 풍경은 제가 항상 그려왔던, 저와 가장 잘 맞는 공간이에요. 거의 십 년 만에 고향에서 다시 생활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적 추억이 많은 소양강 부터 춘천을 대표하는 마임축제까지, 청정지역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잊고 지냈을 소중한 기억들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 소략재

제가 근무하는 세종힐링의원 1층은 병원이고, 제가 일하는 지하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이 없지만 전부터 커피, 와인, 차 같은 음료에는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로컬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저의 생각에 공감해주셨고, 간단히 커피를 내어드렸던 접견실을 정돈하면서 지금의 소략재가 탄생했어요.

이 곳에 오시는 손님 중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기른 유기농 케일 주스나 당근 주스를 웰컴 드링크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춘천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료들로 메뉴판을 가득 채우고 싶어요.



3



농부의 시장에서는 소주 칵테일을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도시농업입니다. 매주 월요일 강원도시농업협동조합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춘천의 농부들을 알게 되고 서로 크고 작은 도움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부의 시장 플라마켓에서 웰컴 드링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필요한 재료들은 플라마켓에서 구해서 동네 어르신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소주 칵테일을 대접해드려요.

술을 좋아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동네분들이 집에서 쉽게 드실 수 있게 부담없이 만들어드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로컬 아이템은, 자전거

처음에는 출퇴근 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동차로 다닐 때 보지 못하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마임 축제도 보고, 계절 따라 농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도시와 가깝지만,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품고 있는 춘천을 알리기엔 자전거만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고 싶어요.



참여청년
인터뷰

03

내게 프로젝트는 [아침형 인간] 이다

박희원 님(한국천연염색 숭, 전남 보성)

나를 챙기는 일의 고마움

고향은 대구입니다. 패션 분야의 꿈을 갖고 2년 전 서울생활을 시작했죠. 그때까지는 스스로 도시 체질인 줄 알았고, 큰 도시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서울에 있으니 제가 작아지더라고요. 서울은 다양한 문화산업과 폭넓은 인간관계까지, 새로운 것들을 접할 기회는 많았지만, 반대로 그 많은 것들 안에서 정말 나의 것,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긴 어려웠어요. 지역에 내려갈까, 다시 나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무렵, 청정지역프로젝트를 만났어요. 보성에 내려와서 나를 잘 돌보게 되었네요. 점심시간에 숲길에서 산책할 수 있고, 매 끼니 잘 챙겨 먹어요. 도시생활에서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찾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1



2



3

모닝 루틴 챌린지

청정지역프로젝트 근무 기간은 8개월 정도잖아요. 문득 지역에서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만의 루틴(좋고 즐거운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고향에 있는 친구랑 '모닝 루틴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기, 8시 반 출근 전까지 차 마시기, 요가하기, 고양이랑 놀아 주기, 일기 쓰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닝 루틴(아침 습관)으로 세웠어요. 챌린지 덕분에 멀리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는 고향 친구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하나씩 시도하고 있네요.

도시든, 지역이든, 어디든 일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천연염색을 활용한 체험 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연의 색으로 염색하고, 바람으로 말려 만드는 제품은 단순한 옷이나 손수건을 넘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요. 패션 분야 전공자로서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다양한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봄에는 계절의 색을 담은 손수건 패키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했어요. 회사는 이런 업무 노력을 인정하고, 항상 지지해줘요. 제가 여러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돌아보니, 지역생활을 통해 얻은 게 많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도시든 지역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 자연을 담은 일을 하고 있어서 기뻐요.



- 1 지역공헌기관에서 아이들과 연극놀이를 진행했다.
- 2 서울에 지낼 때 모습. 하지만 서울에서 지역을 그리워했다.
- 3 지역에 내려와 맞이한 나의 생일. 회사분들이 다들 축하해줬다.

나만의 로컬 아이템은, 이어폰

보성에 내려오고 가장 큰 변화는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은 뒤 회사 앞의 숲길을 걷고, 퇴근 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달려요. 산책을 할 때는 그 날의 풍경에 맞는 노래를 골라 듣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뀌는 풍경에 어울리는 노래를 따라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호흡과 여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참여청년
인터뷰
04

내게 청정지역은 [고민 해결사] 다

박수연 님(우시산, 울산광역시)



1

'나'를 찾아가는 선택, 울산행

저는 좋아하는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형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림과 웹디자인, 사진, 영상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를 제대로 정해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 능력이 알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많은 지역기업들을 살펴보다가 한 사회적기업을 만났습니다.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고, 내게 맞는 일과 경험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우시산은 경력 보유 여성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에 발벗고 나서 해결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울산행을 택했어요.



2



3

- 1 청년이 직접 그린 울산의 명소, 간절곶.
- 2 청년 대상 중간 워크숍 '청정미, 놀면 뭐하니?'에 참석했다.
- 3,4 고래박물관과 함께 한 '안녕, 고래야' 전시회에 기획자 겸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고래박물관 전시 기획

고래박물관 기념관에서 제품 전시회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고래박물관, 울산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큰 규모의 전시회였죠. 전시 기획자 겸 디자이너로 참여했어요.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협력해 전시회 배너부터 포스터까지 행사에 필요한 크고 작은 구성을 모두 기획하고 만들어나갔어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전시회를 기획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뜻깊은 경험이었죠.

스쿨존 경고장을 만든다

울산에서 지내던 중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지역 문제 해결 캠페인을 작업했어요. 최근 스쿨존 내 불법 주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잖아요.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캠페인의 하나로 경고문 제작을 했어요. 흔히 앞유리에 붙이는 지류 형태가 아니라 자동차 손잡이에 걸 수 있는 형태를 생각했죠. 차량은 경고장으로, 스쿨존 아이들에게는 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경고장에 포함되는 방향제 디자인을 담당했어요. 스쿨존을 경고하는 귀여운 디자인과 함께 기분 좋은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 누그러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조금이나마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사실이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게 청정지역프로젝트는 나를 알아가는 기회이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술이라는 분야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맞는 일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머물면서 그런 고민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디자인이 나에게 잘 맞고, 나도 이 분야에 재능이 있구나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4

나만의 로컬 아이템은,
버스 시간표
여기는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인데요. 버스 배차 간격이 꽤 길어요. 한 번은 버스를 40분 이상 기다린 적이 있어요. 이후로는 외출 전에 꼭 버스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이제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는만큼, 울산의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참여기업
인터뷰
01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지속가능성] 이다

이태성 대표(춘천 더뉴히어로즈)

춘천의 더뉴히어로즈는 환경을 실천하는 회사다.

2011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다짐하며 회사를 열었다. 사업계획서 마지막에 담은 사명이 '더뉴히어로즈'였다.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영웅이라는 이름. 이대표는 "지구인의 관점에서 생활 속 '작은 영웅'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다"며 수줍게 웃었다.

창업 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친환경 패션 영역은 꽤 넓어졌다. 처음 런칭한 브랜드 '콘삭스'는 옥수수를 재료로 만든 친환경 양말이다. 비 친환경의 1/3은 제품 생산에서, 2/3는 삶의 방식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제품군'이 나왔다. 은사로 제작된 '실버라이닝'(수건, 속옷 등)은 항균기능이 뛰어나 청결한 느낌이 오래 유지되는 제품으로 세탁을 덜 하자고 제안한다.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아래, 제품 구매자에게는 매월 세탁 비용을 적립해 준다. 4인 가족 기준 매월 1744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 일상의 소비자를 지속가능성에 참여시키는 흥미로운 마케팅이다.

또 춘천에서 유일하게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 중이다.

더뉴히어로즈는 "일상의 실천이 환경적인 임팩트를 키운다"고 말한다.

올해 춘천 더뉴히어로즈의 '작은 영웅' 시리즈에는 두 명의 서울청년이 참여했다.

지속가능성에 합류한 청년들은 디자인과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있다.

Q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가 있을까요?

춘천은 작은 도시에 비해 대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또 ITX 등 교통편이 잘 갖춰져서 서울로 이동이 편해 청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이 지역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일을 구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이지만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모순된 상황이지요.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구하고, 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나누고 싶었어요.

Q 청년들은 지역기업에 잘 적응했나요?

우리는 분위기 좋은 작은 회사라 아직까지는 이직률이 낮아요(웃음). 그동안 신규채용 없이 서로 잘 묻쳐서 일을 꾸려왔어요. 새로 청년을 들이면서 우리 팀워크에 잘 맞을까, 살짝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마치 오래된 팀원 같다고 할까요.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발전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1 회사는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공유 오피스 '커먼즈 필드 춘천'에 위치했다.
- 2,3 춘천 유일의 제로웨이스트 샵 '요선당'. 물품 기증 및 재활용 문화를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

두 친구 덕에 올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사업 확장의 계기가 됐어요.

Q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춘천은 제 고향입니다. 20대에는 서울에서 영상 관련 일을 했어요. 비빔 서울살이를 하다가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즐겁게, 필요한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N턴을 결심했어요. 두 청년의 지역생활이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내년에도 두 청년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큼니다. 내가 춘천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들이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같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춘천을 좋아하나요?".

Q 지역생활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은 네트워킹이나 트렌디한 정보 교류, 인프라 등에서 분명 서울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죠. 저 역시 서울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묻죠. '서울에 있다고 해서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지역에서 10년을 잘 버텼더니 다양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어디서든 나만의 색을 갖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요즘은 정말 지역에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다

김철우 대표(부산 알티비피알라이언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있을까. 김철우 대표는 부산 영도에서 오랫동안 선박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지만 조선 항만 산업이 침체하면서 동반 하락을 겪었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애정을 갖자. 지역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지역의 사라지는 것들에는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하게 엮여있다. 영도라는 지역에서, 사라지던 조선소 건물을 배경으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자"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모였다. 회사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선박 기자재가 쌓였던 공장은 '메이커스페이스'로 변신했다.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영도의 빈집은 리모델링됐다. 노후된 동네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자는 '마을 리빙랩'이다. 오랫동안 쓸쓸했던 창고는 지역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됐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일자리와 주거, 네트워킹이라는 삼박자가 어울리면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이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철우 대표는 "서울청년이 지역에서 살아보는 청정지역프로젝트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프로젝트와 연결 된다"면서, "지역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서울청년이 부산 영도에 합류했다. 공간에 활기를 넣고,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멤버들이다.

Q 청정지역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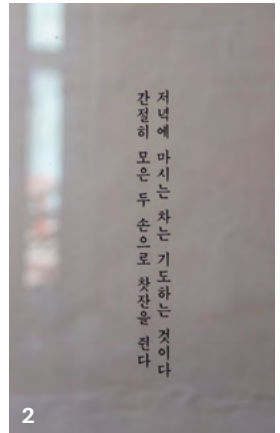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프로젝트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입니다. 서울청년들이 부산으로, 또 서울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U턴할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잖아요. 지역청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힘을 얻습니다.

Q 서울청년들이 합류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서울 청년이 부산 영도로 온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조직문화가 바뀌고 그 자체로 동네가 활기를 얻으니까요. 영도의 작은 회사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의미가 큰 거죠. 지역의 청년들은 일을 찾아 서울로 몰리는데, 반대로 도시청년들이 지역을 찾아 U턴한다? 얼마나 흥미로운 시도인가요. 지역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흥미로운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Q 청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청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이 먼저겠죠. 각자 가진 자질들이 분명한 친구들이라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갈 겁니다. 지금 자기를 둘러싼 주변 상황과 삶의 방식이 뭔가 맞지 않고 힘들면, 한번쯤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과 속도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보는 경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역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좋은 청년들이 모이면 정말 할 게 많습니다.



1,2 부산 낯은 동네의 빈 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빈 곳에 이야기를 채우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음을 갖고 있다.



참여기업
인터뷰
03

우리에게 서울청년은 [Drink Fresh] 이다

이인식 대표(안동브루잉컴퍼니)

로컬맥주를 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다고 한다. "Drink Local, Drink Fresh". 지역을 알고 신선함을 마시자는 뜻이다. 로컬은 지역성(개성), 신선도는 유통 기간과 거리가 갖는 매력이다. 로컬맥주는 대량화와 획일성의 반대편에서 작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청정지역프로젝트와 닮은 점이 있다.

"서울 말고 지역 살자"는 제안이 "Drink Local"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안동브루잉컴퍼니는 서울생활자(이인식 대표)와 지역의 양조사가 의기투합해 창업했다. 여러 지역을 찾다가, 지역소주로 유명하고 장인정신이 있는 안동에 양조장을 열었다. 안동의 특화 재료인 맹개밀, 안동 생강 등을 사용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안동 원도심의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안동맥주 펍을 열었다. 유동인구가 줄어든 원도심에서 '안동브루잉 펍'은 요즘 말로 '핫플', '힙플'이 됐다. 지역 양조장의 성과는 좋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어워드(Korea International Beer Award, 이하 KIBA)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 했다. 금메달은 안동 맹개밀과 생강을 사용한 밀맥주 '오드아이'인데, 청정지역프로젝트의 힘(?)이 조금 실렸다. 올해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한 청년이 패키지 작업에 참여한 맥주다.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서울청년들에게, '로컬' 한 잔을 권하고 싶다. "우리 함께 지역을 마시자! 정말 신선하잖아."

Q 안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안동은 저랑 전혀 연고가 없지만, 제가 설계한 꿈과는 연결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여행자 카페를 운영 하면서 틈틈히 전통주, 맥주 양조를 배웠어요. 맥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면서 본격적으로 로컬맥주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조의 꿈과 지역성이 연결돼 이곳에 자리 잡았어요. 주말 가족이 된 게 조금 아쉽지만, 다른 삶의 요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과 지역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Q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는 뭔가요?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이라는 가장 큰 걱정 하나를 해결한 셈이죠. 지역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지역기업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친한 분이 된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 1 양조장에서 만난 고양이. 안동맥주 캐릭터와 닮았다.
- 2 안동맥주는 맹개밀, 안동생강 등 지역재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맥주를 만든다.
- 3 안동 구도심에 로컬맥주 펍을 열었다. 사람들이 찾는 '핫플'이다.



'사람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 어떻게 청년을 채용 했냐며 궁금해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라 정말 반갑죠. 지역의 양조산업은 제조나 생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감각적인 디자인이나 마케팅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청년이 우리 맥주에 젊은 감각을 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어요.

Q 지역에 내려와 잘 사는 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함께 한 청년을 예로 들면, 같이 지내던 반려견과 함께 내려왔어요. 아침저녁으로 반려견과 논독길을 산책하니까 여기서도 덜 외롭지 싶어요. 무엇보다 지역의 반려견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더 밀착했습니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재료로 반려견 간식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갖고 있다면, 더 빨리 더 즐거운 지역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Q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 해줘서 든든했어요. 지역생활을 활기차게 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이게 끝은 아니니까 계속 다른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겠죠.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었기를,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진심으로 응원 합니다.





참여기업
인터뷰
04

지금 지역에는 [함께 일할 청년] 이 절실하다

이은정 사무장(충남 홍성환경농업마을)

홍성환경농업마을은 유기농업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 문당리에 자리했다. 오리농업 발상지인 문당리의 친환경농업 비율은 경작지의 70% 정도에 이른다. 친환경 농업 관련 사계절 교육 및 체험형 사업을 하면서 도시청년이 필요했다. 구인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다.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역 적응력이 있는 사람, 귀촌에 대한 진로 탐색하는 청년 우대'.

이은정 사무장의 4년 전 모습이 저랬다. 도시에서 대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다가, 농촌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찾아 홍성에 내려왔다. 자발적 농촌생활을 하면서 내 맘 같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는 건 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농촌생활 4년 째,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지역만큼 새로운 기회가



1 추수가 끝난 벼짚을 활용해 빗저루 만들기 키트를 기획했다.

있을까?"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함께 지역생활의 답을 찾아나갈 청년 파트너를 구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이희쌤이 문당리에 합류했다. 이은정 사무장은 "지희쌤이 동참하면서 새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과 함께 일할 청년,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청년과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홍성환경농업마을은 다양한 농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교육을 배우러 많은 손님들이 들립니다. 유기농산물로 만든 떡과 강정, 쌀빵 등 좋은 재료를 활용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또 천연염색체험을 위해 쪽 농사를 하거나, 엮기름으로 술을 만드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희쌤의 젊은 생각이 여러 도움을 줬습니다. 블로그 "문당리 일기"를 개설하고, 도시 아이들을 위한 벼짚 제작 키트 판매(네이버 스토어)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죠. 새로운 시도가 힘들 수 있는데, 지희쌤은 마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걸 즐거워하고, 늘 새롭게 뭔가를 발견했다는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Q 도시에서 지역으로 온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제가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내려온 지 4년째입니다. 나의 동료,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일할 동료가 절실히 필요했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지역은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거든요.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청년과 함께 지역의 재미난 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지역이 마냥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지역생활에 대한 불안과 고민, 희망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청년이죠. 그럼에도 지역은 여기에서의 고민과 희망을 함께 풀어나갈 청년들이 간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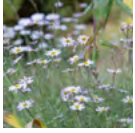
Q 지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 경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내려왔어요. 미술 수업을 하면서 식물성 색감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역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겠다는 기대, 지역에 뿌리가 있는 지역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그 삶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과 지역이 이미 가진 것을 연결하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Q 청정지역프로젝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청년과 함께 새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문당리에서 1년의 시간이 앞으로 삶에 많은 추억과 경험이 되기를 응원 할게요. 지역에 왜 청년이 필요한지, 청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약속이 필요한지, 지역의 고민에 귀 기울이면서 절박하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공헌기관
인터뷰
01

아이들에게 청정샘은 [따뜻한 위로] 다

이순호 선생님(경북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주변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그 아이들의 분노를 풀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청년은 이곳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음악으로 소통합니다. 한 아이는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우더니, 앞으로 피아노에 전념하고 싶다는 삶의 목표에 대해 말합니다. 음악을 통해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 정말 멋진 일 아닐까요?”

청정지역프로젝트는 지역기업에서 주 32시간 근무하고, 주 8시간은 지역공헌활동을 펼친다. 지역공헌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서울청년들이 지역사회와 더 따뜻하게 교류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청년들은 아이들의 학습 지도와 정서 지원,

어르신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경북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은 두 청년이 직접 문을 두드려 아이들과 연결된 기관이다.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기 어렵고, 젊은 쌤(봉사활동 선생님)이 드문

지역에서, 청년들은 음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지역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성악 전공자로 아이들의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이순호(아고보) 선생님은

“짧은 만남이지만 이 곳 아이들에겐 평생 남을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Q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함께 하나요?

이곳에는 6호 보호처분(소년원 대신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 보호시설에서 적극적인 심성 및 진로 교육을 통해 자립과 재사회화를 돕는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탄치 않은 주변 환경 탓에 '억세고 거친' 아이들이 된 거죠. 저는 두 청년과 함께 상처받은 아이들을 음악활동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활동이 아이들의 내재된 분노를 밖으로 끌어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Q 두 청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매주 금요일 아이들을 만납니다. 나인 쌤(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진기 쌤은 반주음악(MR) 등 작곡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악 수업을 위한 악보를 구해주고, 아이들 음역 대에 맞춰 프로그래밍 해주니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은 음악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1,2 두 서울청년은 이곳에서 음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지역공헌활동을 했다. 이순호 음악치료 선생님은 음악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학원도 읍내에 나가야 겨우 만나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청년들을 만난 건 너무 고맙고 반기운 일이지요.

Q 아이들과 소통은 잘 됐나요?

지역에서는 두 분처럼 젊은 쌤을 만나기 어려워요. 아이들이 누나, 형처럼 따르고, 쉽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피아노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인데, 나인 쌤을 만나 지금은 재즈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할 실력이 됐어요. 아이에게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온 거죠. 아이는 앞으로도 피아노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해요. 목표가 없던 아이에게 앞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이보다 근사한 일이 있을까요?

Q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나요?

아, 12월에 작별인사를 해야 하나요? 너무 아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계속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 좋은데요. 사람들은 경북 군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음악으로 아이들을 만나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짧은 만남이지만 여기 친구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겁니다. 당신이 내준 시간이 아이들에겐 굉장한 선물이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역공헌기관

인터뷰

02

지역에서 청정쌈은 [대화를 나눌 친구] 다

황영란 센터장(전북 익산 옥아지역아동센터)

현재 옥아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25명이다. 아이들은 특별활동으로 '사물놀이'를 배우는데, 15명 아이들이 사물놀이 공연단으로 활약한다. 올해 아이들은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탓에 공연이 취소되면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었다. 황영란 센터장님은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을 때면 엄청 신나하던 아이들인데 너무 속상하다"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아이들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한부모와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끼리 어울려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외로움을 타는 아이들이 있다. 옥아지역아동센터에는 정지은, 이효정 두 청년 쌤이 지역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자원봉사 쌤이 오면 늘 반갑다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두 청년은 언니, 누나 같은 젊은 쌤으로 아이들과 만났다. 센터장님은 "아이들과 또래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Q 지역아동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센터가 위치한 동네는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여기 25명 아이들은 소외계층 아이들 60%, 일반 가정 아이들 40% 정도로 나눠지는데, 서로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온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을 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Q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여기 아이들은 사물놀이 활동으로 제법 유명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특화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15명 아이들이 공연단으로 활동합니다. 올해 아이들이 열심히 사물놀이를 연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나가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보여주고 관객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못해 속상합니다.

Q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지역 아이들은 도시와 비교해서 문화적 소외감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의 문화예술 공연이 빈곤하죠. 아이들의 문화수업을 하려면 가까운 전주로 이동해야 하는데, 한 번 나가려고 해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힘든 점이 있네요.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문화 정서적 지원이 부족해 아쉽습니다. 지역 아이들이 다양하고 넓은 세상을 만나면 좋겠어요.

Q 청년 쌤과 함께 한 시간은 어떻게 기억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늘 아이들과 교감할 선생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 쌤들은 언제나 환영이죠. 청정지역프로젝트로 오신 지은, 효정 쌤은 아이들과 언니, 누나로 지낼 수 있는 젊은 쌤이라 반가웠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외로움을 타는데,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가정불화로 우울감에 빠진 사춘기 아이가 있거든요. 청년 쌤이 또래 친구처럼 진로와 고민 상담 등 아이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만나줘서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청년 쌤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청년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 쌤들이 어디서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

1,2 정지은 청년이 공헌기관 소속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언니, 누나같은 모습에 아이들은 친근하게 마음을 나눈다.



2

Local
Light

로컬라이트 X 지역기업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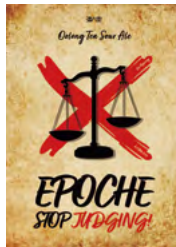
올해 청정지역프로젝트는 현대백화점그룹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머문 청년과 지역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청년들이 참여한 로컬라이트는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30팀, 60명 청년들이 각자 머문 지역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로컬라이트 총 상금 규모는 650만원(대상 200만원) 상당이다. 또 전문 유통망을 가진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역기업 제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관료지원(청정지역프로젝트 마켓, 11월 20~2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 유폴렉스 지하 2층 행사장)에 나섰다. 청년과 지역기업들은 현대백화점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로컬라이트
×
대상

주인공(酒人空)

지역의 문제를 수제맥주에 담다

김경호(투메나) 이해정(현대페이) 오지선(현대페이) 배지연(알티비피얼라이언스) 이의정 (위다스) 최은영(미스터멘션, 이하 부산)



START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다

부산 송정동의 파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시위 맥주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면서 부산은 일명 '맥주 덕후'들이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지역 문제를 맥주의 향과 맛에 담아 지역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스토리텔링한 수제맥주를 시음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광안리 바닷가에 떠 밀려 온 바다의 쓰레기,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청년들의 지역 이탈과 취업난 등 어렵고 딱딱한 사회 문제를 수제맥주에 담고, 사람들이 '한번쯤은 맥주를 훌쩍이며 생각해볼만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PROGRAM 6명 청년이 만든 6개의 지역맥주

부산의 지역문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양조사 출신 김경호 님의 주도 아래 수제맥주 레시피를 만들고 양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6명, 6종의 맥주가 탄생했습니다. 푸른 빛 광안대교 야경을 담은 'BUSSAN', 부산의 교통 체증을 스트레스가 아닌 스모키함과 달달함의 양면성을 담은 'TRANSPORTER', 구도심 산복도로의 원주민들이 관광지화 되면서 마을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담은 페일에일 '젠트리피케이션', 타지로 떠나는 청년을 위로하는 'HALF', 청년 세대의 취업 문제를 담아 청년을 위로하는 달콤한 향을 첨가한 'EPOCHE', 주인공 프로젝트의 최종 가치인 행복을 담은 강한 복숭아향 에일 'HOPPIEST'. 6종 수제맥주에는 6명 청년이 고민과 위로를 담았습니다.

Epilogue 아직 못 다한 이야기

주인공 프로젝트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부산의 지역 문제를 담은 로컬맥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낮선 지역에 내려온 서울청년들(외지인)이 바라보고 표현한 부산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맥주 시음 및 전시회를 찾아온 지역민들은 다행히 우리의 생각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SNS를 통해 우리의 결과물을 만나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 지역, 부산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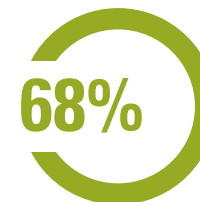
숫자로 만나는 로컬라이트



총 30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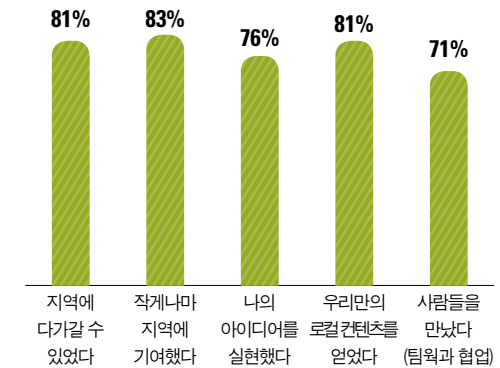


참여청년 60명



로컬라이트를 통해 지역문제에 공감하게 됐다

로컬라이트 참여를 통한 변화와 성장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네 서점을 열다

박은정(경북 상주, 상주다움협동조합)

START 상주에 없는 '글쓰기 수업'

저의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서울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으려면 한참을 고민해서 골라야 할 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상주에 내려와서 보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취향 탐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내가 머문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로컬라이트 프로젝트를 접하고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PROGRAM 동네서점 '좋아하는 서점'을 열다

코로나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았고, 모임 장소로 계획했던 카페에서도 모임 공지를 우려하셔서, 글쓰기 모임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골 카페 사장님께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혹시 생각이 있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걸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공간에서 100일 팝업 서점을 오픈하고, 계획했던 글쓰기 모임을 모집했습니다. 매주 1회 2시간씩 총 6회, '행주'와 '안녕하', '당근'이라는 필명을 가진 3명의 지역민들과 글쓰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인부를 물었습니다.



“

첫 모임에서 만난 '안녕하'는 알고 보니 클래스 매니아였습니다. 드로잉, 플라워, 필라테스, 우쿨렐레, 안배워 본 취미생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다른 도시에 배우러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게임에만 빠져 지냈다면 좀 침체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관심 있는 건 독서와 글쓰기인데, 그건 정말 상주에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일까요, 안녕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저 진짜 보자마자 연락 드렸어요. 상주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글쓰기 모임을 하게 되다니, 지금 안하면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청했어요.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 참여 후기

”

열두 달 살고 싶은 도시, 울산 울산의 명소 12경을 다시 담다

박수연(울산 우시산)

START 울산 = 공업도시가 아니다?

공업도시로 알고 있던 울산은 알고 보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도시'였습니다. 멋진 관광지들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고착화된 울산 지역의 올드한 이미지를 변신시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울산에 예술을 결합해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PROGRAM 열두 달 살고 싶은 도시, 울산

울산은 대표 명소 12곳을 지정하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12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울산 12경'이 열두 달 떠오르길 바라며 관광지마다 어울리는 달(月)을 매칭해서 그 계절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드로잉 재료 '콘테'를 사용해 관광지의 모습을 투박한 선으로 표현하거나, 포토샵으로 현대미술 감성을 담은 등 총 12개의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울산 12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길 바라는 마음에 울산 남구청에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작업물이 울산을 알리는데 어떻게 사용될까요? 벌써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

원하는 포스터의 느낌을 내기 위해 같은 그림을 열 번도 넘게 그렸습니다. 어떤 포스터는 18번의 시안을 생각했습니다. 더 멋진 결과를 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가끔은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 싸우며 진한 희로애락을 느낀 만큼 분명 스스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는 지금은 뿌듯함에 실실 웃음이 납니다. 내가 이긴 느낌이 듭니다!

<열두 달 살고 싶은 도시, 울산> 참여 소감 중

”



메리&안동 지역의 로컬라이트를 인터뷰하다

신영은(경북 안동 앤젤플라워)

PROGRAM 내가 만난 '로컬라이트'

내가 머문 지역에는 이미 지역을 밝히는 '로컬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먼저 머물면서 빛을 밝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가일서가: 돈보다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며 한옥 서가를 운영하는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부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삶을 가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소조 사진 공방: 걱정과 불안 말고, 스펙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으로 옮긴 20대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다누림 협동조합: 신세동 마을주민과 마을 재생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배운 건 '자립'과 '공존'입니다.

세상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시네마: 경북 내 유일한 독립예술영화관. 관객이 한 명 없는 날이 있지만, 내 인생의 영화관이란 자부심으로 운영한다고, 늘 다짐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복떡방: 떡과 빵, 한과를 만드는 카페. 손님맛이를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삶이 20년 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의 습관을 가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믿기지 않겠지만, 기사 하나당 최소 10시간, 보통 15시간에서 16시간을 씁니다. 말을 덜어내고 끊임없이 퇴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만난 사람들이고 애정이 있다 보니 모든 말들이 귀중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대가 없이 인터뷰에 응해준 소상공인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글을 써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언제나 빛은 안에서부터 나온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ですよ.
 -메리&안동 진행 소감”



청정 투웬스_부산 '착한기업' 알리기 프로젝트

배한나(오난코리아) 조미혜(세반석컴퍼니) 오하영(프리랜드) 양미린(로망, 이상 부산)

START 2주에 한 번 지역을 만나다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착한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홍보 부족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부산의 '착한기업'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멤버 넷이 2주에 한 번씩 그들을 찾아갔어요.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찾아나선 2주! 그래서 이름이 '청정 투웬스_2weeks'입니다.

PROGRAM 우리가 만난 착한기업들

부산 최초 제로웨이스트샵 '천연제작소', 기증받은 물건을 재판매하는 '굿윌스토어', 장애와 비장애를 디자인으로 허무는 '키뮤스튜디오',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에 위치한 일자리 카페 '꿈+블렌딩', 지역 어르신을 고용하는 수제청 카페 '담아오',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는 '금정구 자활지역센터' '기장지역 자활센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작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로 만난 굿윌스토어에는 우리가 근무하는 기업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
 천연제작소 인터뷰를 통해 환경오염과 재활용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굿윌스토어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전해들었습니다. 수제청 카페 담아오는 지역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야기들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새삼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청정 투웬스 진행 소감”



로컬맥주 살롱 B.B.B 청춘과 지역이 취하다

김진형 강석화 안주원(가나다라브루어리) 김연희(뷰티풀올리데이) 양연정(디자인스위치, 이하 경북 문경)



PROGRAM 지역에는 문화교류가 부족해서

지역사회는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재능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나누고 싶었어요. 양조사와 기획디자인팀이 뭉쳐 시작한 게 '청춘 로컬맥주 살롱 B.B.B(Beer 배워 비워)'입니다. 로컬맥주를 통해 지역 사람들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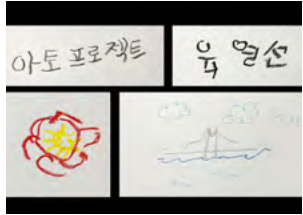
PROGRAM 지역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8월부터 준비해서 9월에 인스타그램을 오픈하고, 모임 전단지 돌렸습니다. 최종 10명의 참여자가 살롱 멤버가 됐어요. 10월~11월 매주 수요일 저녁, 5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회 차 맥주란 무엇인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맥주, 2회 맥주의 일생: 맥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들. 효모와 맥아, 홉과 물의 이야기, 3회 편의점과 마트에서 만나는 세계 맥주, 4회 당신이 몰랐던 한국 맥주와 전국 유명 브루어리, 5회 맥주 페어링.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맥주를 시음 하고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즐거운 모임을 진행했어요.

“
 연구도 없는 문명에 와서 제일 좋았고 감사한 순간은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지역에 다시 베풀고 싶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청년들이 누릴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문명에서 작게나마 문화 관련 수업을 진행하며 우리가 받았던 호의를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 돌려줄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B.B.B 진행 소감”



인기상 (SNS상) 10팀



아토 프로젝트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다

곽영희(새반석컴퍼니), 김하림(미스터맨션, 이하 부산)

부산은 대한민국 6개의 광역시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인구 수 증가에 따라 이어지는 고독사와 생계유지곤란 등 사회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팀원 김하림 님이 활동하는 하늘가람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육영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해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후원금은 모두 육영선 할머니께 기부하였습니다.



산골 노인 가정을 위한 영양소 꾸러미 배달

김나연, 이진기 (경북 군위, 경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

군위군 내에서도 읍내방문이나 장보기가 유독 더 힘든 외딴(산골짜기) 지역에 사는 15 개의 노인 가구에 먹기 편하고 단백질 채워줄 수 있는 식품을 사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먹기 편하고 소화가 편한 보관과 취식의 간편함을 고려했습니다. 바나나 한 손, 즉석 조리식 국 2종류, 간편 비빔밥 재료, 깐 메추리알 1봉을 세트로 하여 군위군 부계면과 소보면에서 생활하시는 15가구에 고루 전달해드렸습니다.



월간 소설 살롱

지역의 청년과 문화를 나누다

조하은, 강유진, 황민건 (경북 문경, 리플레이스)

서울의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생활과 비교해 지역은 그런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문경 지역 청년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머문 산양면 셰어하우스와 카페 산양정행소에서 '월간 소설 살롱'을 열었습니다. 17명의 문경 지역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축구를 보며 교류했습니다.



안계에서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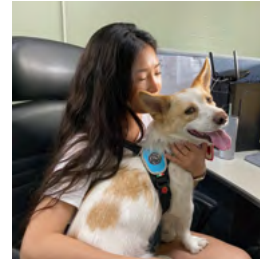
김도형 (대구, 메이드인피플)

도시청년들이 의성 안계면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청춘구행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안계에서 정착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린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다음에 지역에 살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안계의 삶을 보냅니다"라는 작고 애뜻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산 명소를 한 눈에

허준 (부산 코어무브먼트)

부산의 역사적 장소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소개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륙도 해맞이 공원, 월드컵기념 등대공원 등을 방문해 유쾌한 컨텐츠로 담았고, 유튜브 조회수가 평균 200회를 넘는 등의 홍보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두번째 이야기

맥아 껍질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김예빈 (경북 안동, 안동브루잉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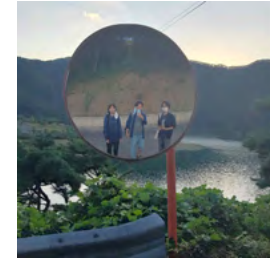
반려견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동물에 대한 공감대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서의 동물 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로컬수제맥주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다보니 매년 가족들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버려지는 맥박(맥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당화를 마친 맥아 껍질)을 보곤 했습니다. 맥박을 사용해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 반려견 동반 시설에 판매했고,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안동 동물보호소에 기부했습니다.



동네 문방구 살리기 프로젝트

조하준, 서미진, 이지혜 (경북 안동, 고타야 게스트하우스)

아이들의 추억의 장소인 학교 앞 문방구들이 요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형 문구점과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학교 앞 골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겨운 문방구의 기억과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안동 서부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문방구 '양반문구'와 그 옆을 지키는 '다래분식'을 만났습니다. 시간날 때 들러 페인트칠을 하고, 매대를 정비했습니다. 문방구 전용 쿠폰과 장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짜배기 과산여행

과산에서 1박2일 즐기기

정도희, 김복은 (충북 과산,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 한종원 (과산한살림영농조합법인)

청년 세대들에게 과산은 지역 자체 인지도가 낮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게 된 과산의 매력적인 모습을 SNS를 통해 알리고자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대상에 맞게, '차가 없어도', '당일치기'로 가능한 여행 루트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박희원, 염보경, 한재호(전남 보성, 한국천연염색 숭)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보성복지관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기업에 초대해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흰 긴팔 티셔츠에 쪽물을 들이는 체험과 다도 체험을 함께했죠. 아이들을 공한기관 밖에서 만나고, 우리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라서, 아이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색다른 경험과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속초의 카페를 한눈에!

두송희(강원 속초, 크래프트 루트)

속초에는 맛있는 먹거리나 유명한 관광지는 많지만, 속초 하면 떠오르는 카페나 디저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8곳의 속초 카페를 방문했고, 블로그에 포스팅 하며 소개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의 맛,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뷰포인트와 포토 스팟 등, 속초를 여행하면 한번쯤 방문하고픈 곳을, 속초 카페투어를 통해 사람들이 더 다녀갈 수 있도록 제가 만난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 기획전은 11월 20일~22일 3일 동안 현대백화점 목동점 유플렉스 지하2층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서울청년을 채용한 지역기업 4곳,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 '넥스트로컬' 3개 기업이 참여, 도시 소비자를 만났다.

청정지역프로젝트 X 현대백화점그룹 후원

청정지역프로젝트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 마켓 지역기업 기획전〉은 지역에 내려간 도시청년들의 이야기와 지역기업이 만든 좋은 상품을 담은 팝업 상점이다. 청정지역프로젝트 마켓은 11월 20일~22일 3일 동안 현대백화점 목동점 유플렉스 지하2층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지역의 좋은 재료와 친환경을 생각하는 지역기업 7곳이 참여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탬이 되려는 아들은 사과즙을 만들고, 물리학자이던 아들은 꿀벌을 브랜딩했다. 서울청년들은 좋은 농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고, 친환경에 고민하는 청년들은 대나무 칫솔, 환경을 생각하는 수건 등 지속가능한 생활 용품을 만들고 있다. 소중한 마음을 가진 지역기업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지속가능성을 갖고 소비자를 만나는 자리,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역기업 판로개척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기획전에는 서울청년을 지역기업에 채용하는 청정지역프로젝트,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넥스트로컬'이 함께 참여했다. 청정지역프로젝트의 후원사로 참여한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비대면 방식의 품평회를 열고 판로 지원을 희망한 여러 지역기업들을 만났다. 지역의 재료로 만든 제품군이 청년 참여로 더 활발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회사의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기업 X 비대면 품평회

지난 10월 8일 현대백화점그룹 본사에서 지역기업 판로개척 기획전을 위한 품평회가 진행됐다. 현대백화점그룹 동반상생팀과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전문 MD 등 여러 심사위원들이 참여한 품평회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먼저 심사위원들은 품평회에 참여한 제품들을 시식한 뒤 참여 희망 기업과 온라인으로 만나 궁금한 점을 들었다.

품평회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지역기업은 총 18곳. 품평회 심사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지역 기여도와 상품 경쟁력, 소비자 호감도 및 지역 특수성, 청년 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비대면 품평회를 통해 최종 4곳의 지역기업(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과 3곳의 지역 기반 청년 창업 제품(넥스트로컬 참여)이 기획전에 참여하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이병만 대리는 "유통전문그룹으로서 지역과 청년이 동반성장하는 청정지역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이번 판로지원 품평회를 통해 지역 자원과 청년, 도시가 서로 만나는 시너지 모델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정지역프로젝트 기획전에서 만난 이야기

“지역에는 청년 자원이 듭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 문경에 머문 서울청년이 있어 큰 도움이 됐어요. 지역이 가진 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지역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처럼 대도시 소비자와 지역기업들이 만나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기업이 만든 좋은 제품들을 응원해주세요”
- 문경 오미자밸리 김기운 업무지원 과장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

“지역기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청정지역프로젝트 마켓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는 서울청년들이 청년 인구가 줄어든 지역기업에서 근무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스트로컬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이고요. 지역과 청년이 만드는 좋은 제품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좋은 제품들을 위한 상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현대백화점 목동점 김진산 대리

“비대면 품평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역기업을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만든 제품들의 품질과 시장성이 좋았어요. 가장 인상 깊은 건, 반려견 간식이나 친환경 제품 등 청년들의 니치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참여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현대백화점그룹 동반상생팀 이찬형 대리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고민하면서 플라스틱 등 환경을 해하는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를 생각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영월 지역의 천혜 자원을 갖고 지역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상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주로 쓰는 플라스틱 칫솔과 치약을 비교한다면 작지만 의미있는 환경 실천을 하는 셈입니다. 지역과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피스온테이블 지구샵 김아리 대표(넥스트로컬 참여)

지역기업 스토리



가난한 농부 아버지의 사과농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혈값에 유통되는 작고 못난 사과가 아까워 직접 사과즙을 만들었다. 원물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햇살담은' 브랜드를 갖고 자사 공장에서 직접 착즙하는 중이다.
-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 착즙하는남자



세탁을 자주 할수록 환경이 오염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도움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실버라이닝 제품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세탁 횟수를 줄이는 목표로 만든 제품이다. 항균기능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한 속옷, 수건 제품으로 세탁 횟수를 줄이는 환경 실천을 제안한다.
- 춘천 더뉴허어로즈 실버라이닝



지역의 좋은 토양에서 자란 알 굵고 껍질이 얇은 최고 품질의 안동생강이 재료다. 100% 원액 제품. 지역의 좋은 재료와 함께, 생산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안동반가 생강전액



문경은 국내 오미자생산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박종락 대표는 언젠가는 오미자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생각으로 2006년 문경에 넓은 땅을 샀다. 인공색소와 향, 설탕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오미자 제품을 선보인다. 2016년 스타벅스와 '문경오미자피자오'를 출시했고, 해외수출에 적극적이다.
- 문경오미자밸리 명작 오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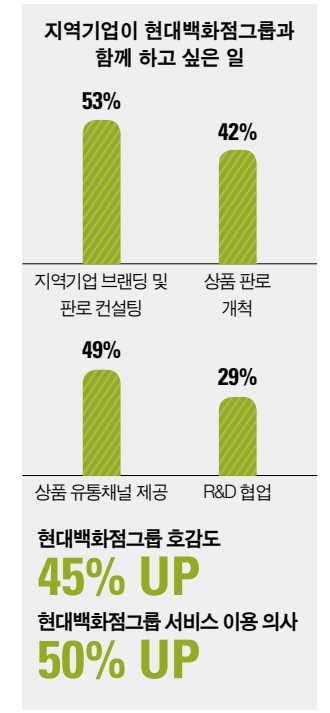
영월에서 지구로 거창한 친환경 구호 같지만, 이를 실천하는 작지만 진심을 가진 회사다.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고 말한다. 칫솔과 치약을 대체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환경 실천이 가능하다. 영월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
- 피스온테이블 지구샵



100% 국내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은 간식을 연구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청년들이 지역의 친환경 재료를 갖고 양질의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 다정한마켓 로렌츠



40여년 이상 아버지가 일궈온 양봉업의 노하우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다. 물리학을 전공한 다음 세대의 아들이 건강한 꿀벌 키우기에 도전한다. 전통적인 양봉업을 젊은 세대에 맞춰 매력적인 용기에 담아낸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 테이아, 물리학자의 꿀벌



Ending Letter



청정이 여러분! 어느새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빠르게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면 '지역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가끔 생각해보게 돼요. 이 긍정적인 말에는 지역살이를 선택하면서 감수해야하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살이는 어떠셨나요? 좋았다, 나빴다. 두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감히 넘겨짚어봐요. 기분이 아니라 기억이 남는 한해였기를, 소중한 공간을 하나 더 얻어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안녕!
이권민(강원/제주 점프 매니저)

2020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삶의 다양한 변화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걸어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1년에 어떤 걸음을 만들어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최선의 자리이며 행복한 자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 경험이 21년 걸음에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결(부산/울산/경남 점프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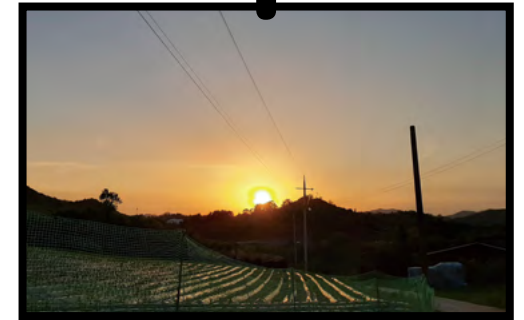
여러분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으셨나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을 맞이하는 게 사무국에서 아쉬움이 큰 한해였어요! 봉봉이(청정지역프로젝트X점프 공식 운영, 차증은 레이^^)와 함께 만나러 다녔던 여러분의 싱그러운 지역에서의 모습이 참 많이 기억에 남네요. 처음 신청했던 그 마음, 기대가 어떠했던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나의 리틀 흙타운을 갖게 되신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이유리(통합사무국 점프 팀장)

청정지역프로젝트를 선택했던 올해가 여러분께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애썼던 만큼 힘든 일, 즐거운 일 모두 간직하고 싶은 추억으로 남으시길 기원해봅니다. 서울이든 지역이든 청년이 머물기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청년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형호(충청/전라 점프 매니저)

올 한 해 치열하거나 짜질했거나 신났거나 답답했거나 그 모습과 소감은 다들지 몰라도, 그래도 이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눈부시게 빛났던 그런 2020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찬란하길 응원합니다!!! 파~~이쓰~P
한아름(경북/대구 점프 매니저)

지역에 적응될 쯤 되니 벌써 프로젝트가 끝날 시기가 되었네요. 12월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고 지역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가 여러모로 활동하시는 데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끝까지 완주하여 수료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응원할게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경북/대구 지역사무국)



강원 청정이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과 지역의 쓴 맛, 단 맛 다 맛보셨죠?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경험, 하면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올해 청정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남긴 것은 무엇인가요? 젊은이! 청정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청정지역프로젝트는 끝나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오요리아시아(강원/제주 지역사무국)

여러분들의 2020년이 어떻게 기억될 지 궁금하네요~ 청정이 생활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운영사무국의 매니저로서도 처음이라 서로 잘 버티기만을 응원했네요. 누군가에게는 도전, 심, 변화 등의 이유로 지역에 내려와 살아본 8개월. 회의감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했던 청정이들의 지역살이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주춧돌이 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술자숲(부산/울산/경남 지역사무국)

안녕! 충청 전라 청정이들! 우리 청정이들이 처음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온 4월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프로젝트가 끝나가네요. 운영국에서 지꾸 연락하고, 서류 요청도 많이 하고, 시키는 것도 많고, 또 재미없는 거 하면서 지꾸 불러낸다고 귀찮진 않았죠? 운영국 매니저들은 청정이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더 많이 만나고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나기 어려웠던 게 참 많이 아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해준 청정이들도 있고, 처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꿈을 찾아 떠난 청정이들도 있지만 운영국은 우리 충청 전라의 청정이들이 어딜 가셔도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청정이들이 나아갈 길을 항상 응원할게요!
혈동조합 주인(충청/전라 지역사무국)

LOCAL
X
WORK
X
STAY

청정지역프로젝트

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

발행 2020년 12월

총괄 기획 서울시(지역상생경제과)

컨텐츠 제작 청정지역프로젝트 통합운영국(사단법인 점프)

청정지역프로젝트 지역사무국 2020

오요리아시아(강원/제주)

사회적경제허브센터(경북/대구)

기술지숄(부산/울산/경남)

협동조합 주인(전라/충청)

사진 팀2470

디자인 네거티브 에이치(negative H)

인쇄 신세계기획

저작권자 © 서울시

※ 매거진 저작권은 서울시(청정지역프로젝트)에 있습니다. 매거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2020 All rights reserved

LOCAL
X
WORK
X
STAY

청정지역프로젝트

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

지역에는 사람이 귀합니다.

청년 인구 소멸이라는 딱딱한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만큼 젊은 인구가 적습니다. 다들 도시로, 서울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서울 말고 지역에 머무는 건 어때요?”

서울과 지역을 나누기 보다는, 청년이 어디에 있든,
그 곳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가능성이 청년이 필요한
지역에서 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죠.

올해 173명 서울청년들이 전국 99개 지역기업에 채용되어 지역생활을 경험했습니다.

12월 31일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지역생활이 마감됩니다.

반갑게도, 지역에 더 머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역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